

# 제2장

##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1절 아편, 헤로인

제2절 코카인

제3절 암페타민류각성제[ATS]

제4절 대마

## 제1절 아편, 헤로인

### 1. 세계 개요

- ▶ 2012년 15~64세의 세계 아편류 남용자는 1,650만 명으로 안정화 단계이나 서남아시아, 중앙아시아, 동유럽과 북미 지역에서 높은 남용률을 보였고 유럽 지역은 공급억제와 치료재활로 인해 헤로인 남용률은 감소 추세임
- ▶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은 2012년 현재 약 223,982ha로 이 가운데 약 75%를 아프가니스탄이 차지하고 했으며, 전체 양귀비 경작면적이 15% 상승했으나(대부분이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 지역) 아프가니스탄의 양귀비 흉작으로 인해 전체 아편 생산량은 전년대비 약 30%인 5,000톤 가량 감소하였음
- ▶ 2009년 이후, 아프리카 지역에서 헤로인 압수량이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동아프리카 지역은 10배 이상 증가했고, 2011년 모르핀과 헤로인의 전체 압수량은 증가하였으나 터키와 서유럽 및 중유럽 국가에서는 감소함

표 2-1 세계 양귀비 경작면적

[단위: 헥타르]

국가별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131,000	104,000	165,000	193,000	157,000	123,000	123,000	131,000	154,000
	파키스탄		1,500	2,438	1,545	1,701	1,909	1,779	1,721	362	382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6,600	1,800	2,500	1,500	1,600	1,900	3,000	4,100	6,800
	미얀마		44,200	32,800	21,500	27,700	28,500	31,700	38,100	43,600	51,000
콜롬비아			3,950	1,950	1,023	715	394	356	341	338	
멕시코			3,500	3,300	5,000	6,900	15,000	19,500	14,000	12,000	
기타 국가들			5,190	5,212	4,432	4,184	8,600	7,700	10,500	16,100	11,800
합계			195,940	151,500	201,000	235,700	213,003	185,935	190,662	207,500	223,982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표 2-2 세계 양귀비 생산(추정량)

[단위: 톤]

국가별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황금의 초승달지대	아프가니스탄		4,200	4,100	5,300	7,400	5,900	4,000	3,600	5,800	3,700
	파키스탄		40	36	39	43	48	44	43	9	9
황금의 삼각지대	라오스		43	14	20	9	10	11	18	25	41
	미얀마		370	312	315	460	410	330	580	610	690
콜롬비아			49	24	13	14	10	9	8	8	
멕시코			73	71	108	150	325	425	300	250	
기타 국가들			75	63	16	15	139	134	181	281	207
합계			4,850	4,620	5,810	8,091	6,841	4,953	4,730	6,983	4,647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2. 소비(남용) 동향

- ▶ 아편남용은 2009년 이후 아시아 전역에서 증가하고 있으며, 데이터가 충분하지 않아 정확한 통계는 낼 수 없지만 전문가들에 따르면 아프리카 지역 역시 광범위하게 남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고, 북미, 오세아니아, 근·중동 및 서남 아시아, 동·남동유럽 지역은 세계 평균 수준을 상회하는 남용률을 보임
- ▶ 남아프리카의 경우 헤로인 남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알제리의 경우 아편 남용률은 안정적인 반면 모로코는 증가 추세임
- ▶ 남·중미 지역의 아편 남용은 세계 평균을 밑도는 낮은 수준이나 콜롬비아는 헤로인 남용이 점점 증가하고 있음
- ▶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파키스탄에서 아편 남용률이 증가하고 있는데, 2012년 파키스탄에서 진행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비록 높은 수준이지만 세계 평균 및 아프가니스탄과 이란의 수준보다는 낮은 아편 남용률을 보이고 있고, 이들 중 대부분은 헤로인 중독자이며, 중국은 2010년 106만명으로 등록된 헤로인 중독자 수가 2011년 124만명으로 늘어 매년 증가 추세임
- ▶ 중앙아시아와 트랜스코카서스 지역의 헤로인과 아편 남용 문제는 주요 관심사로, 아제르바이잔, 그루지아와 카자흐스탄에서는 아편 남용률이 높은 수준임
- ▶ 유럽은 헤로인을 대체하는 처방된 합성 진통제(prescription opioids) 오용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 서유럽과 중유럽의 경우 최근 몇 년간 헤로인 남용률은 하락 추세인데 이것은 펜타닐과 부프레노르핀과 같은 대체제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며, 동유럽과 남동유럽에서는 성인인구의 1.2%에 해당하는 인구가 헤로인 남용자로 벨라루스는 아편유사체(opioid) 남용자의 증가 추세가 보고되었는데 이들 가운데 68%는 현지생산된 'kompot' 또는 'cherniashka'<sup>1)</sup>라 불리는 아편조제용 물질이 남용되고 있음

1) 'kompot'는 양귀비 줄기에서 나온 미정제 재료이며, 'cherniashka'는 양귀비와 무수초산이 혼합된 형태로 생산된 것

### 3. 생산 동향

- ▶ 2012년 아편 생산량은 4,905톤으로 2011년 생산량인 6,983톤보다 감소했으며 최대 아편 생산국인 아프가니스탄의 경우에도 양귀비 전염병과 나쁜 날씨로 인해 2011년 5,800톤에서 2012년 3,700톤으로 감소하였으나, 미얀마의 총 아편 생산량은 2012년 690톤으로 2011년 610톤보다 증가함
- ▶ 전 세계적으로 양귀비 경작면적은 2012년 대비 15% 늘어난 223,982ha로 아프가니스탄과 미얀마가 여전히 양귀비 주 재배국가로 전체의 85%를 차지함

표 2-3 세계 아편·헤로인 생산량 (2005~20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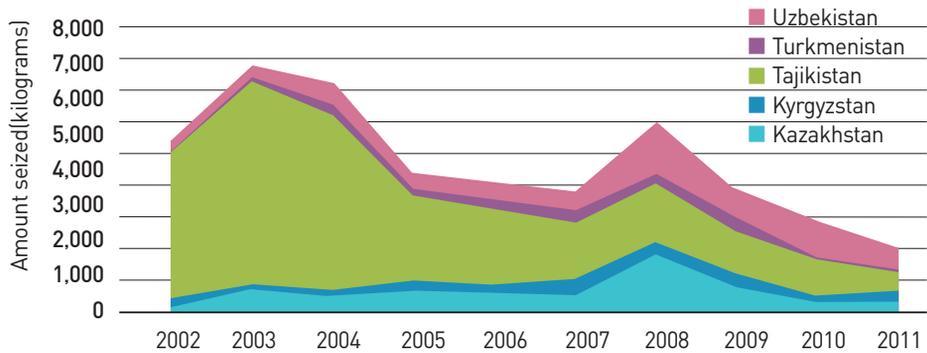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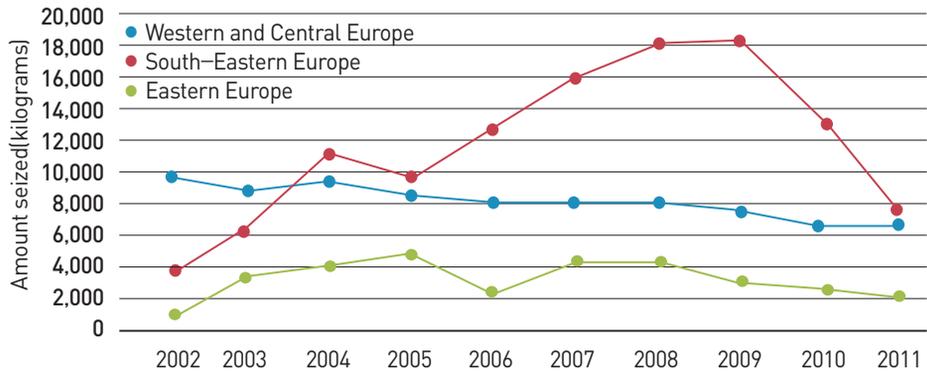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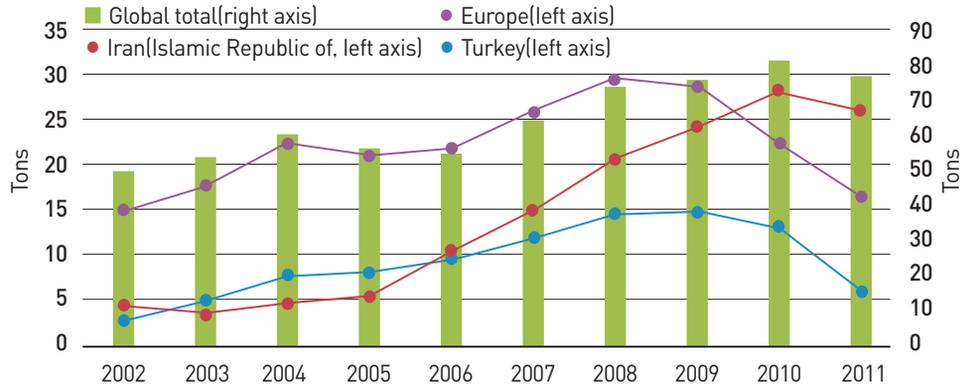
(단위: 톤)

연도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전체 아편 생산량	4,620	5,810	8,091	6,841	4,953	4,730	6,983	4,905
헤로인으로 제조되지 않은 아편의 양	1,169	1,786	3,078	2,360	1,680	1,728	3,400	1,850
헤로인으로 제조된 아편의 양	3,451	4,024	5,012	4,481	3,273	3,002	3,583	3,055
전체 헤로인 제조량	472	553	686	600	427	383	476	311

※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4. 밀매 동향

그림 2-1 세계 헤로인 압수량 추이 (2002년~2011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 전 세계 아편 압수량은 2009년 653톤으로 2002년 이후 최고점을 기록했다가 2010년 492톤, 2011년 491톤으로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4년 이후부터 아프가니스탄, 이란과 파키스탄 세 국가의 아편 압수량은 전 세계 압수량의 90%를 차지하고 있음
- ▶ UNODC 자료에 따르면 이란의 경우 2002년도부터 2009년까지 아편 압수량은 73톤에서 580톤으로 거의 8배가 급증했으나 2010년부터 압수량은 400톤 정도로 안정화되었다가 2012년 388톤이 압수되어 2011년도 압수된 374톤 보다 소폭 증가함
- ▶ 아프가니스탄의 아편 압수량은 2012년 3월부터 2013년 3월 사이 71.6톤으로, 2011년부터 2012년 같은 시기에 압수된 60.5톤과 2010년부터 2011년 같은 시기에 압수된 44.5톤과 비교 할 때 증가 추세에 있음<sup>2)</sup>
- ▶ 파키스탄의 아편 압수량은 2011년 23톤에서 2012년 29톤으로 증가했고, 인도의 아편 압수량 역시 2011년 2.3톤에서 2012년 3.6톤으로 증가함
- ▶ 전 세계 헤로인 압수량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급격히 증가하여 2010년에는 81톤을 기록했으나 2011년부터 그 추세가 바뀌어 6% 하락한 76톤이 압수되었고 2012년에는 9% 감소된 69톤이 압수되었는데 이는 중동·서남 아시아에서의 압수량이 대폭 감소하였기 때문임
- ▶ 이란의 압수량은 2011년 23톤에서 2012년 10톤으로 급감, 파키스탄의 경우 2011년 7.7톤에서 2012년 12.7톤으로 증가했으며, 파키스탄은 아편의 주 이동경로로 이용되고 아프가니스탄에서 생산된 헤로인의 40%가 파키스탄을 통해 이동함<sup>3)</sup>

2) Afghanistan, Ministry of Counter Narcotics, drug report for 2012, November 2013

3) Country report submitted by Pakistan, Thirty-seventh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1-24 October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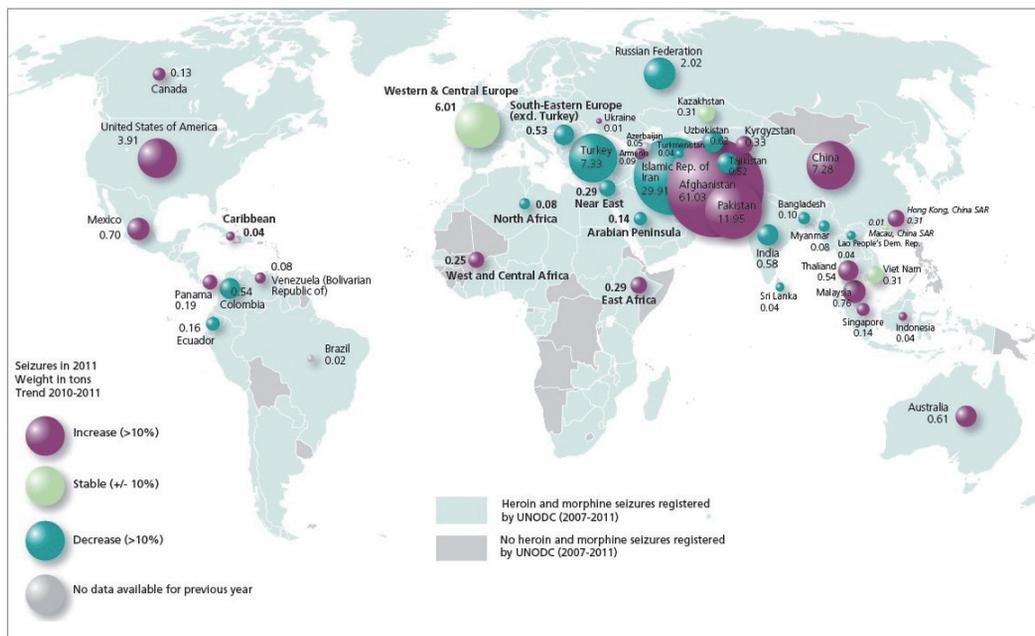
## 2013 마약류 범죄백서

- ▶ 동·동남 아시아 지역에서 헤로인 압수량은 2011년 9.2톤에서 2012년 9.1톤으로 안정화 단계에 있으며, 중국은 이 지역에서 헤로인 압수량이 가장 많은 국가로 2011년 7.1톤, 2012년 7.3톤을 기록했는데 중국 당국의 보고서에 따르면 미얀마 북부지역이 중국으로 들어오는 주요 루트임<sup>4)</sup>
- ▶ 아프리카 지역의 헤로인 압수량은 2011년 621kg, 2012년 674kg을 기록했는데 동아프리카 지역에서 278kg,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에서 284kg,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112kg이 각 압수됨

그림 2-2 2011년도 세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

(단위: 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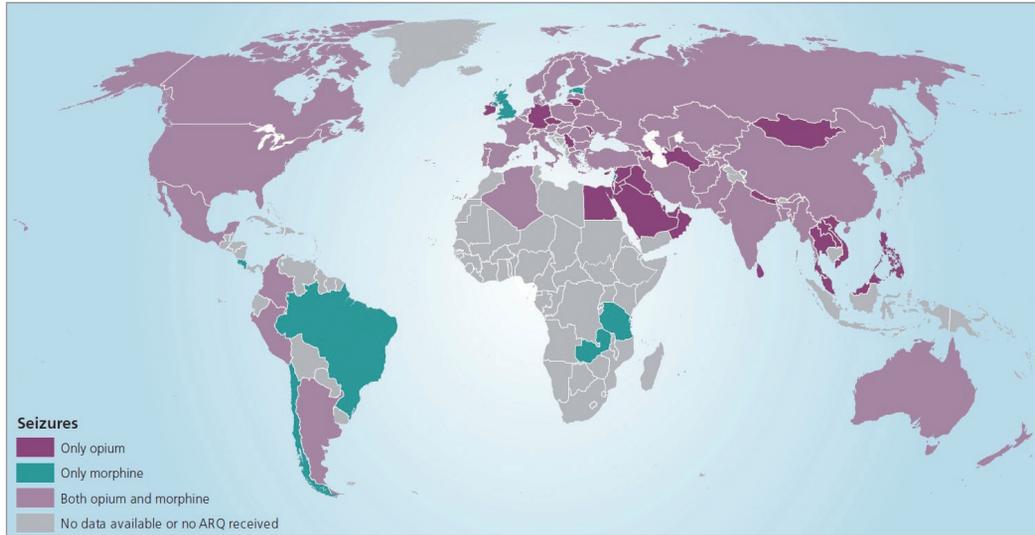
2011년도 전세계 헤로인과 모르핀 압수량(10kg 이상 압수보고 국가와 지역)



※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4) Country report submitted by China, Thirty-seventh Meeting of Heads of National Drug Law Enforcement Agencies, Asia and the Pacific, Bangkok, 21-24 October 2013.

그림 2-3 2007~2011년도의 아편과 모르핀 압수 동향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5. 국내 헤로인 유통추세

(단위: 명)

연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검거인원	1	1	1	0	0	18	5	0	4	0
압수량(g)	12	9	18	0	0	1,914	81	0	3.5	0

- ▶ 1970년대 초에는 매년 적지 않은 양의 헤로인이 압수되고 상당한 국내 사용자가 있었으나, 최근 10여 년간은 내국인 사용사범이 거의 적발되지 않고 있음
- ▶ 1990년대 초반까지는 태국 등 동남아에서 소비지인 북미 등으로 운반하는 과정에서 한국은 중간 경유지로 이용될 뿐이었음. 1997년 이후부터는 중국, 태국, 방글라데시로부터 직접 국내로 밀반입되는 사례가 꾸준히 적발되어 왔으나, 2007년도와 2008년도엔 적발 사례가 없다가 2009년도에 대량 적발되었고, 2010년도에 적발 건수 등이 감소하여 2012년도에 4명 적발된 이후 적발사례 없음
- ▶ 헤로인은 1990년대 초반에는 나이지리아인이나 홍콩인 등 주로 외국인들에 의해서 운반되다가 1994~1997년에는 황금의 삼각지대의 마약밀매조직인 쿤사조직과 연결된 내·외국인들에 의해서 밀반입되었고, 1998년에는 태국 마약밀매조직이 주한 외교관사의 외국인 가정부와 공모, 태국으로부터 대량의 헤로인을 우편물로 위장하여 한국으로 밀반입한 뒤 이를 다시 미국으로 밀반출한 사례가 적발되었으며, 2002년에는 방글라데시인들이 본국으로부터 헤로인 1,077g을 밀반입하였음
- ▶ 특히 2001. 7. 3회에 걸쳐 헤로인 원료물질인 무수초산을 직물로 위장,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고, 2007. 9. 경부터 2008. 3. 22. 경까지 무수초산 약 15.48톤을 수출용 폐 탱크로리 차량의 탱크 등에 은닉, 부산항을 통해 이란을 경유 아프가니스탄에 밀수출한 사건과 2008. 3. 2. 무수초산 약 2.8톤을 같은 방법으로 밀수출을 시도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7. 4. 7. 경부터 2008. 2. 27. 경

무수초산 50톤을 5회에 걸쳐 과산화수소로 위장하여 파키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으며, 2009. 2. 13.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5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파키스탄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한 사건이 적발되었음

- ▶ 2008. 7. 2.경 무수초산 12톤을 엔진오일로 위장하고 부산항을 출항하여 이란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었으며, 2009. 8. 17.경 인천항에서 무수초산 10.64톤을 섬유로 위장하고 이란을 경유하여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되어 미수에 그친 사건이 있었고, 2010. 4.경 아프가니스탄인 및 파키스탄인 등이 2010. 8.경부터 2011. 4.경까지 11회에 걸쳐 무수초산 3.7톤을 중고자동차 내부의 약 100kg 가량 기름통 속에 나눠 넣고, 수출용 컨테이너에 중고자동차 부품과 같이 적재하여 밀수출 하였으나 미국 마약수사청(DEA)과 공조하여 아랍에미레이트 항구에 정박해 있던 선박을 적발하여 부산항에서 아프가니스탄으로 밀수출 저지
- ▶ 2009년도엔 대만에 거점을 둔 국제범죄조직이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대만으로의 루트를 이용 헤로인을 운반하다가 대만 세관에서 적발 사례가 증가하자, 캄보디아 또는 태국에서 한국을 경유 대만으로의 루트로 변경하여 한국인 또는 국내 거주 외국인을 고용하여 마약운반책으로 활용, 황금의 삼각지대에서 생산된 헤로인 4.94k을 5회에 걸쳐 밀거래한 사건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밀반입 루트가 점차 다변화되고 있는 현상을 보이는 실례임
- ▶ 한편, 국제사회로부터 마약의 안전지대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을 범죄지로 이용, 헤로인을 제조할 수 있는 원료물질을 밀수출하였다는 점에서 국내기업들이 보유한 마약원료물질(무수초산, 과망간산칼륨)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요망되고 있음

주요 헤로인 밀반입사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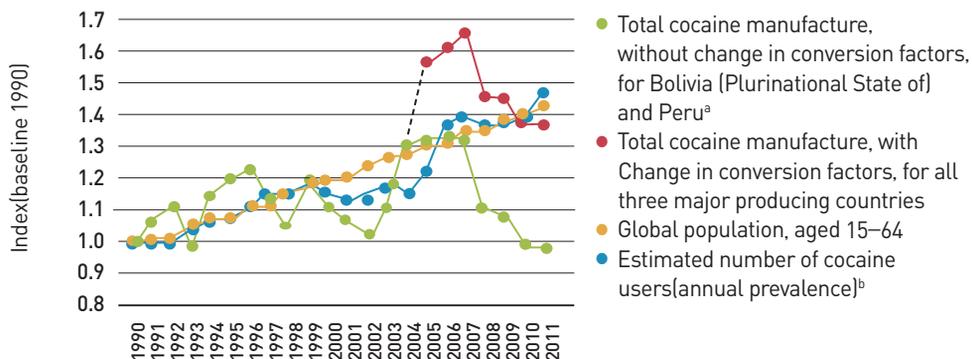
- ▶ 2002년 방글라데시인이 신발 밑창 등에 헤로인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사례가 두 차례 적발
- ▶ 2003년 이란인이 헤로인 약 7g을 밀반입
- ▶ 2004년 ○○○, ○○○ 등이 2004. 10. 9. 캄보디아에서 구입한 헤로인 10.43g을 콘돔 속에 포장 후 생리대 안쪽에 착용한 상태에서 베트남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
- ▶ 2006년 홍콩인이 헤로인 약 18.2g을 비닐봉지에 포장하여 바지 주머니에 은닉하고 홍콩 첵랍콕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 2009. 2.경 대만인이 헤로인 약 370.27g을 콘돔 6개에 나누어 담은 뒤 콘돔 4덩어리는 향문 안에, 콘돔 2덩어리는 바지 양쪽 주머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에서 대만으로 밀수출하려다가 적발되어 미수에 그침
- ▶ 2009. 7.경 대만인 남성 3명이 헤로인 약 1.2kg을 콘돔 17개에 나누어 담고 각자의 향문 안에 5~6개 가량 은닉한 채 캄보디아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 2009. 10.경 나이지리아인 피의자는 인도 델리에 있는 성명불상자가 헤로인 334g을 어학학습용 교재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급우편을 이용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 2010. 8.경 한국계 미국인이 미국 거주 친구가 헤로인 0.98g 및 해쉬쉬 3.57g을 DVD 케이스 안에 은닉한 뒤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자 이를 수령하여 밀반입
- ▶ 2012. 1.경 베트남인 3명이 베트남으로부터 한국으로 헤로인 7.7g 밀반입

## 제2절 코카인

### 1. 세계 개요

- ▶ 코카 경작을 포함한 코카인 제조, 주요 소비국에서의 코카인 압수량과 남용률 등을 종합해본다면 최근 전반적으로 코카인 시장은 줄어들고 있는데, 2013년 전 세계 코카인 남용자수는 1,390만 명에서 2,070만 명 사이로, 주요 시장은 북미와 서·중부유럽 지역이며 2010년과 2011년 사이 코카인 남용이 줄어들었고, 서·중부유럽 지역에서 성인들의 남용률은 2010년 1.3%에서 2011년 1.2%로, 북미지역은 2010년 1.6%에서 2011년 1.5%로 감소한 반면, 대다수의 남미 국가들의 경우 코카인 남용자 수는 감소 또는 안정화 단계이나 브라질에서는 급격히 증가한 남용률을 보이고 호주 역시 증가 추세임
- ▶ 반대로 지난 10년간, 특히 남미 지역에서 코카인 남용률은 증가하고 있는데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 역시 증가추세인데 이것은 전 세계적인 코카인 수요 변화로 인한 것이며 전 세계 인구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아프리카와 아시아 지역에서 코카인 남용률은 현재 낮은 수준이지만 높아질 수 있는 잠재력은 충분함

그림 2-4 전세계 코카인 수요와 공급 지표의 장기적인 경향 비교 (1990~20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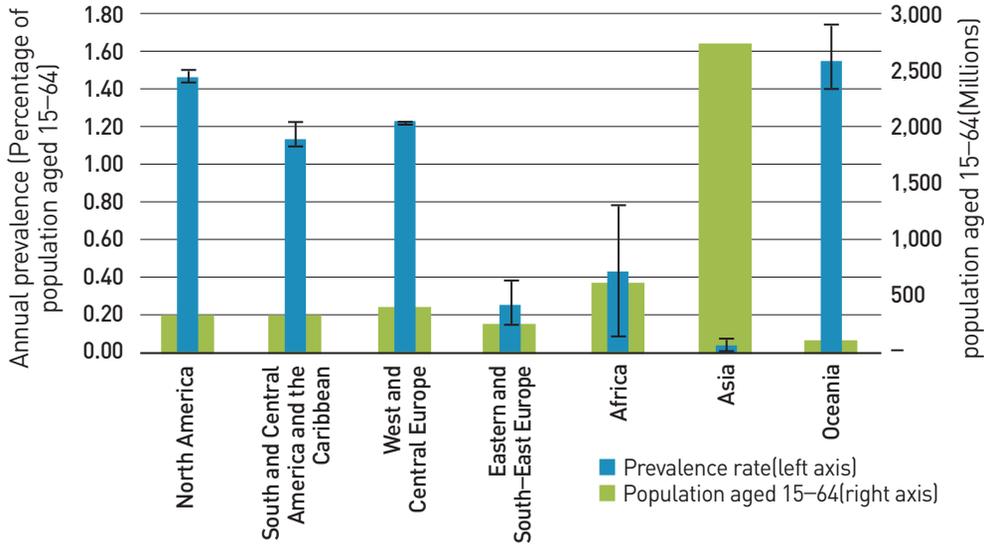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2. 소비(남용) 동향

- ▶ 최근 UNODC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코카인을 최소 한 번 이상 투약한 인원은 약 1,700만 명으로 이는 2011년 현재 전세계 15~64세 인구의 0.37%에 해당함
- ▶ 세계 최대 코카인 남용지역은 북미와 중·서부 유럽 지역으로 이 두 곳에서 남용되는 양은 전세계 코카인의 1/2에 해당하는데, 남미 특히 안데스 지역에서 생산된 코카인이 이곳으로 꾸준히 공급되고 있음
- ▶ 2004~2005년에 조사된 아프리카, 아시아, 오세아니아,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지역, 동·남동유럽 지역의 코카인 남용자수와 2011년의 남용자수를 비교했을 때 엄청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중 하나는 세계 인구의 지역적 분포 때문으로 코카인 남용자 수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든 서·중부 유럽 및 북미지역의 15~64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4%밖에 해당하지 않아 이곳 외의 지역에서 생긴 작은 남용률 변화에도 전체 수요는 크게 움직임
- ▶ 미국과 캐나다 지역에서 코카인 남용은 안정화되어 있으나 멕시코의 남용률은 2008년 0.4%에서 2011년 0.5%로 소폭 상승세를 보임
- ▶ 남미에서 코카인 남용률은 성인 인구의 1.3%로 북미지역과 견줄만한 수준이며 중미 0.6%, 카리브해 0.7%는 세계 평균보다 높은 남용률을 나타냈으며 브라질, 코스타리카, 페루의 경우 상당한 증가를 보임
- ▶ 아프리카, 특히 서부 연안 국가들에서 코카인 남용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는 이곳을 통해 코카인이 밀매되기 때문으로 분석됨
- ▶ 아시아 지역의 코카인 남용률은 0.05%로 세계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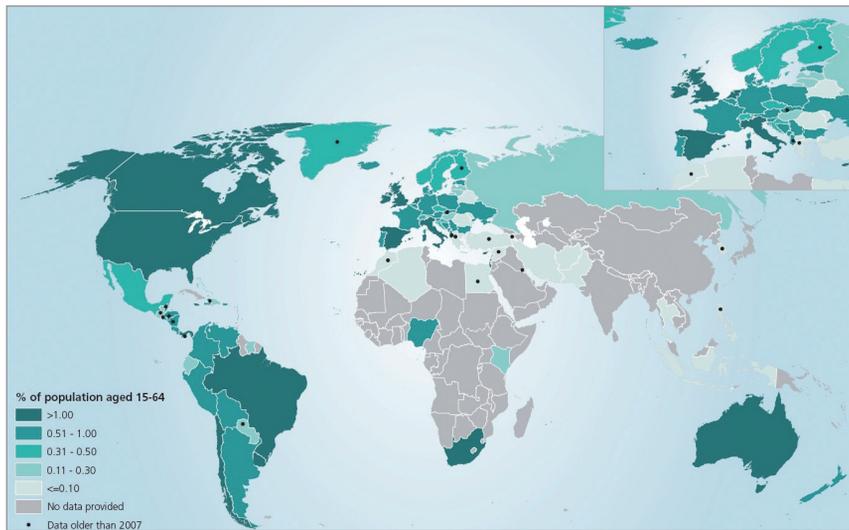
▶ 서·중부 유럽의 코카인 남용률은 1.2%로 세계 평균에 비해 거의 3배 가까이 높은 수준이지만 안정화 또는 하향세임

그림 2-5 15~16세 세계 인구의 코카인 남용률 (2011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그림 2-6 전체 코카인 남용률 (2011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 불법 유통의 양상

제 3 장 국내 마약류 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3. 생산 동향

- ▶ 전 세계 코카의 거의 대부분이 볼리비아, 콜롬비아, 페루에서 재배되는데 2012년 전체 재배면적은 133,700ha로 감소중이며 콜롬비아의 경우 2011년 64,000ha에서 2012년 48,000ha로 25% 감소했는데 2012년 콜롬비아에서만 수작업을 통해 34,486ha의 코카 재배지가 제거되었고 공중살포를 통해 100,000ha를 제거함
- ▶ 페루는 2011년 62,500ha에서 2012년 60,400ha로 감소하였는데 2005년부터 2011년까지 페루의 코카 재배지는 매년 증가해오다가 2012년에 소폭 감소하였는데 2012년 14,230ha의 코카 재배지가 제거됨
- ▶ 볼리비아에서 코카 재배지는 2011년 27,200ha에서 2012년 25,300ha로 7% 감소하였는데, 이는 2011년 12% 감소한 이후 두 번째 감소 추세로써 이는 볼리비아 정부에 의해 2011년 10,500ha가 제거되었고 2012년 5% 늘어난 11,000ha가 제거되었기 때문임

표 2-4 세계 코카나무 경작면적 (2002~2011)

[단위: 헥타르]

연도 국가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볼리비아	21,600	23,600	27,700	25,400	27,500	28,900	30,500	30,900	31,000	27,200
콜롬비아	102,000	86,000	80,000	86,000	78,000	99,000	81,000	73,000	62,000	64,000
페루										62,500
페루 (인공위성 분석 지역)	46,700	44,200	50,300	48,200	51,400	53,700	56,100	59,900	61,200	64,400
합계	170,300	153,800	158,000	159,600	156,900	181,600	167,600	163,800	154,200	155,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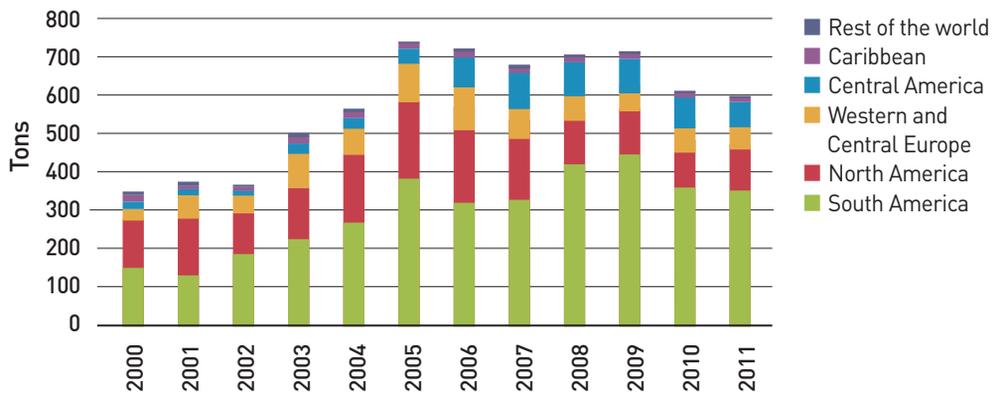
※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4. 밀매 동향

- ▶ 코카인의 세계 압수량은 2010년 694톤, 2011년 595톤으로 최근 몇 년간 비교적 안정화 단계로 접어들었고, 2012년의 경우 전년대비 10% 이내에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
- ▶ 콜롬비아는 단일국가중 가장 많은 코카인 압수량을 기록했는데 2011년 200톤에서 2012년 243톤으로 증가했고, 북미지역인 캐나다, 멕시코, 미국의 코카인 압수량은 감소함
- ▶ 서유럽의 경우 2012년 코카인 압수량은 감소추세로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는 감소, 스페인은 2012년 21톤으로 전년대비 25% 증가
- ▶ 2012년 서아프리카의 코카인 압수량은 전년대비 감소하였는데, 나이지리아는 2011년 411kg에서 2012년 132kg, 베냉은 2011년 425kg에서 2012년 70kg으로 각 감소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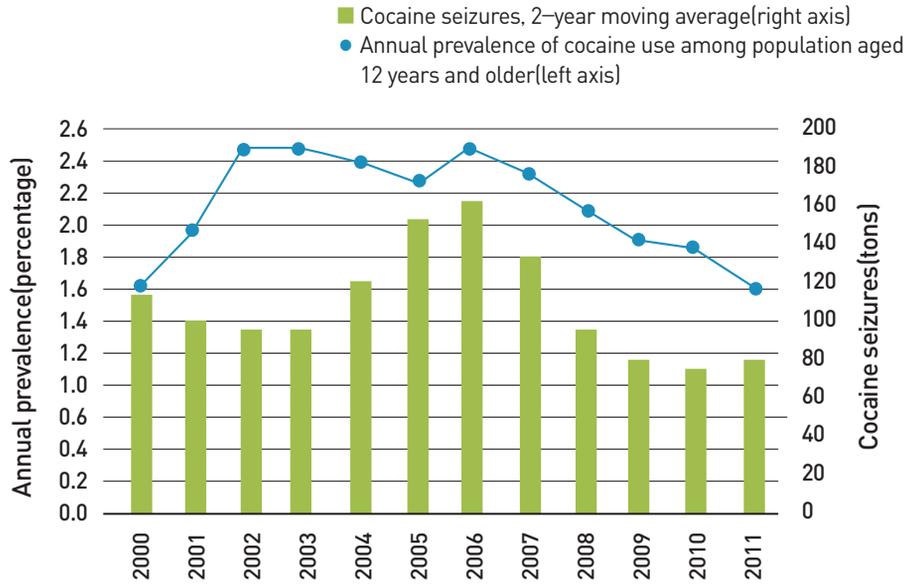
그림 2-7 코카인 압수량

Global cocaine seizures, 2000-2011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Annual prevalence of cocaine use and cocaine seizures in the United States, 2000–2011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5. 국내 유통추세

표 2-5 국내 코카인사범 검거인원 및 압수현황

(단위: 명)

연도별 구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검거인원	6	5	7	4	7	3	0	4	3	8
압수량(g)	8	0	4,772	79	8,869	298	0	2,153	63.62	1,215

- ▶ 코카인이 국내에 들어온 것은 피검거자의 불법 사용 개시 시기로 보아 1986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음
- ▶ 1988년 10월초 소위 '얼굴 없는 코카인 사건'으로 미국으로부터 서울시내 호텔에 투숙 중인 올림픽 관광객에게 발송된 코카인 10g을 처음으로 서울중앙지검에서 압수하였으나 수령인이 소유관계 부인한 후 출국함
- ▶ 코카인 밀매사범을 최초로 적발한 사례는 1990. 2. 21. 부산동부지청의 ○○○ 사건 (150g 압수)이고, 1990. 9. 20. 서울중앙지검에서 국제 코카인 및 에메랄드 밀수조직을 적발하고 코카인 976g을 압수함
- ▶ 그동안 코카인은 주로 남미교포나 남미인들이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하여 일본 등 제3국으로 밀수출하였으나, 2005년도에 한국 어학연수생들이 홍콩 삼합회의 운반책으로 고용되어 코카인 20kg을 일본, 호주 등지로 수출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2006년도에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브라질에서 한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코카인 8.8kg(시가 258억원 상당)을 밀수하려 한 일본인 운반책 3명을 적발하는 등 한국을 경유지로 이용한 사례가 있음

- ▶ 2009년도에는 외국인 영어강사가 미국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58.34g을 국내로 밀반입하는 등의 사례가 적발되었고,
- ▶ 2010년도에는 적발된 사례가 없었으나 2011년도에는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 파나마를 경유하여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서 코카인 2.1kg이 적발되었으며, 2012년도에는 코카인 63.6g 소지사범이 적발되었고,
- ▶ 2013년에는 미국으로부터 항공 기탁화물에 코카인 약 1.18k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는 등 우리나라를 코카인 밀수출 경유지로 이용하거나 인터넷 및 국제우편물을 통한 코카인 밀반입 사례가 증가하고 있음

#### 2004년도 국내 코카인 밀수사건

##### 내국인 '○○○' 사건 (2004. 6. 17. 인천지검)

- ▶ 2004. 6. 14.경 미국 뉴욕 거주 성불상 ○○로부터 비타민제 용기 속에 코카인 4g을 은닉 후 국제특송화물편으로 인천국제항공을 통해 밀반입

##### 내국인 '○○○' 사건 (2004. 11. 30. 서울중앙지검)

- ▶ 2004. 11. 8.경 미국으로부터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1g을 밀반입, 같은 달 29.경 코카인 2g을 같은 방법으로 밀반입(사건특징 : 미국 유학중 코카인 중독, 압수된 코카인은 '크랙'이라 불리며, 보통의 코카인보다 약효가 몇 배 강하고, 중독성이 높은 마약임)

##### 내국인 '○○○' 사건 (2004. 12. 1. 인천지검)

- ▶ 2004. 12. 1.경 미국 거주 불상자로부터 국제소포를 통해 코카인 약 0.5g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2005년도 코카인 밀거래사건

‘한국인 어학연수생 개입 캐나다산 코카인 밀거래’ 사건 (2005. 5. 수원지검)

- ▶ 2004. 4~5.경 사이 한국계 캐나다 시민권자 ○○○는 홍콩의 국제 폭력조직 삼합회 캐나다지부 하부 조직원(추정)으로 한국인 유학생 및 어학연수생들을 운반책으로 이용해 코카인 20kg을 호주, 일본 등지로 밀수출

2006년도 코카인 밀수출사건

‘코카인 4kg 밀수출 네덜란드인’ 사건 (2006. 3. 29. 인천지검)

- ▶ 2006. 3. 27.경 네덜란드 국적(원적: 가봉)의 흑인 ○○○○은 인천국제공항을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룩셈부르크에 도착하는 항공편을 이용하여 코카인 약 4kg(시가 120억원 상당)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밀수출하려다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적발

2007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 사건 (2007. 5. 인천지검)

- ▶ 2007. 4.경 미국에서 윈두커피 봉지 속에 코카인 약 3.2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

2008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코카인 5.2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 ▶ 2008. 8. 14.경 일명 ‘○○○○(나이지리아계 흑인으로 추정)’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 ○○○는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일명 ‘○○’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교부받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고, ○○○○ ○○는 대한민국에서 ○○○ ○○○를 만나서 위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에게 건네주는 역할을 하기로 상호 공모하고 코카인 5.2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코카인 3.6kg 밀수출 일본인’ 사건 (2008. 9. 인천지검)**

- ▶ 2008. 9. 14. 나이지리아 국적 ○○○ ○○○○ ○○○로부터 모든 여행 경비 및 사례금을 받는 조건으로 브라질 상파울루에 가서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이 건네주는 마약이 들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건네받아 일본 항공편으로 일본 나리타공항에 도착한 후 그곳에서 다른 일본 항공편으로 환승하여 한국에 입국하고, 위 ○○○ ○○○○ ○○○가 지정하는 성명불상의 나이지리아인을 서울에서 만나 위 여행용 가방을 건네주고 동인이 이를 일본으로 가지고 가 위 ○○○ ○○○○ ○○○에게 건네주기로 공모하고 코카인 3.6k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2009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외국인 영여강사 ○○○ ○○○○ ○○사건 (2009. 9. 인천지검)**

- ▶ 2009. 9.경 미국에 거주하는 ○○○○○와 공모하여 위 ○○○○○가 미국 애리조나주 템파에서 플라스틱 지퍼백 안에 코카인 58.34g을 은닉하고 우편물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고,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밀반입

**2011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외국 선박에서 대량의 코카인 적발사건 (2011. 4. 부산지검)**

- ▶ 2011. 3.경 미국 조지아주 사바나항을 출발하여 파나마를 경유, 부산항에 입항한 파나마 선적 컨테이너선에 코카인 2.1kg이 은닉되어 있는 것을 적발

대학교 휴학생 ○○○ 사건 (2011. 12. 서울북부지검)

- ▶ 2011. 12.경 서울 용산구에 있는 거주지 내 책상 서랍에 코카인 46.6g을 넣어두어 소지

2013년도 코카인 밀수사건

회사원 ○○○ 사건 (2013. 1. 성남지청)

- ▶ 2013. 1. 네덜란드로 부터 국제통상우편물에 코카인 약 9.72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 사건 (2013. 4. 대전지검)

- ▶ 2013. 3. 미국으로부터 항공 국제특송화물에 코카인 2.13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미국인 ○○○ 사건 (2013. 11. 인천지검)

- ▶ 2013. 11. 미국으로부터 항공 기탁화물에 코카인 약 1.18k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회사원 ○○○ 사건 (2013. 11. 부천시청)

- ▶ 2013. 11. 미국으로부터 항공 국제특송화물에 코카인 13.3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제3절 암페타민류각성제[AT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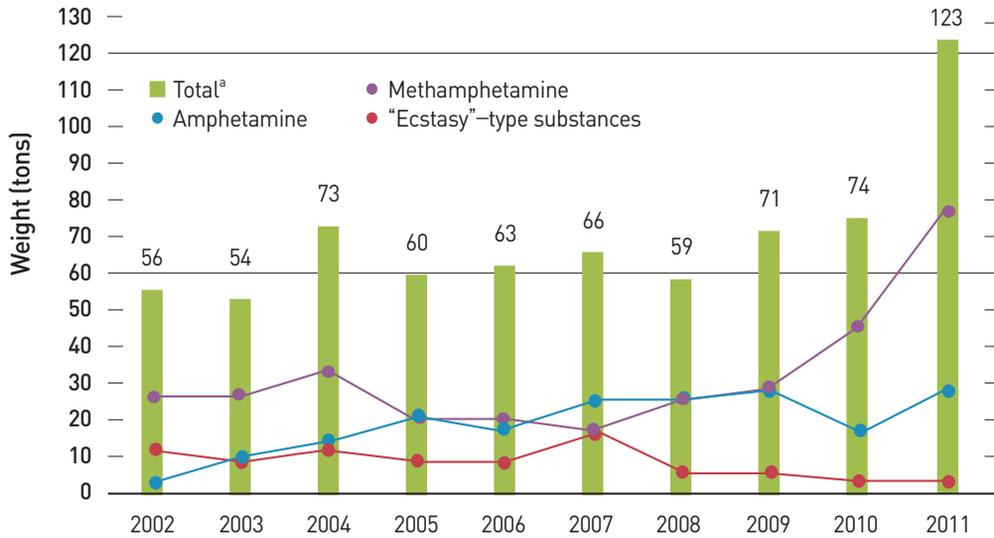
### 1. 세계 개요

- ▶ 엑스터시를 포함한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는 전 세계에서 널리 퍼져있으며 2011년 현재 ATS 남용자는 15~64세 인구의 0.7%인 3,380만 명으로, 엑스터시의 2011년 남용률은 15~64세 인구의 0.4%인 1,940만 명으로 2009년에 비해 하락함
- ▶ 북미와 오세아니아 같은 전통적인 ATS 소비 시장에서의 남용은 안정적이며 아시아의 선진국가들 특히 동·동남아시아 지역에서 남용은 증가세를 보이고, 아프리카에서는 원료물질의 전용과 메트암페타민 제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 ▶ 2011년 압수된 메트암페타민의 양은 ATS 가운데 71%를 차지할 정도로 ATS 사업의 중심에 있고, 특히 폴란드와 러시아에서 밀조가 확산되고 있음
- ▶ 전 세계 ATS 압수량은 2010년 74톤에서 2011년 123톤으로 66%나 증가했는데 멕시코에서 메트암페타민은 같은 기간에 13톤에서 31톤으로 두 배 이상 증가해 처음으로 미국보다 많은 양을 기록했고, 동·동남아시아 지역의 메트암페타민 정제(pill) 압수량은 2010년 1억3천4백4십만 정에서 2011년 1억2천2백8십만 정을 기록해 9%의 하락세를 보였으나 메트암페타민의 경우 8.8톤이 압수되어 지난 5년간 최대치를 기록함

▶ 새로운 향정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이란 화학적인 변형을 가해 통제물질의 효과를 모방하는 동시에 국제적인 통제에서 벗어나 있는 물질을 말하는데 UNODC에 따르면 2009년 116개였던 NPS는 2013년 두 배가 넘는 351개로 조사되었고<sup>5)</sup> 그 가운데 합성대마(synthetic cannabinoids)와 페네틸아민(phenethylamines)이 각각 23%, 캐치논(cathinones) 18%, 트립타민(triptamine) 10%, 피페라진(piperazines) 5%를 차지함

그림 2-8 전세계 ATS 압수량 (2002~2011)

Global seizures of amphetamine-type stimulants, 2002-2011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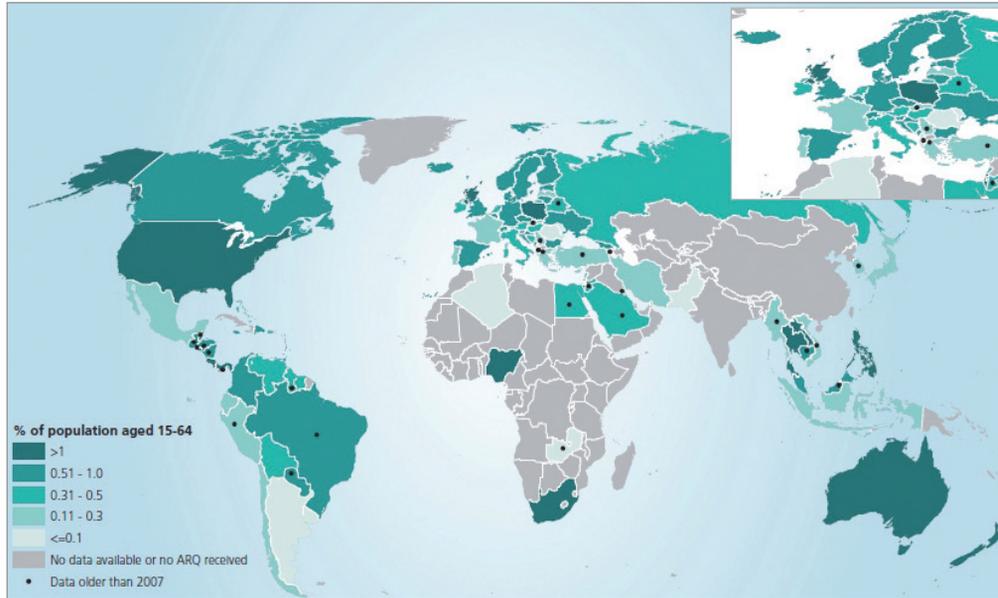
5) UNODC Early Warning Advisory on New Psychoactive Substances 참고 (www.unodc.org/LSS/Home/NPS)

## 2. 소비(남용) 동향

- ▶ 전체적으로 ATS 시장이 확장되고 있는 가운데 압수량과 소비는 증가하였고 밀조도 확산되고 있음
- ▶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에서 ATS 남용은 증가추세로 원료물질의 전용과 메트암페타민 밀조 및 남용이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그 예로 최근 들어 파키스탄 지역의 ATS 남용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전체인구의 0.1%에 해당하는 남용률을 보임
- ▶ 특히 아시아 지역에서 다른 마약류 남용률은 세계수준보다 낮지만 전 세계 엑스터시를 포함한 ATS 남용자의 25%가 동·동남 아시아 지역에 분포하며, 캄보디아, 라오스, 미얀마, 베트남에서는 메트암페타민 알약(pill)이 주로 남용되고 브루나이,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일본, 필리핀, 한국에서는 크리스탈 메트암페타민이 주로 남용됨<sup>6)</sup>
- ▶ 오세아니아와 중·북미, 남아프리카 지역에서 ATS 남용률은 높게 나타난 반면 동남아시아 지역에서의 남용률은 세계수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보고됨
- ▶ 북미의 경우 ATS와 엑스터시 남용률은 각각 1.3%, 0.9%로 세계수준을 상회하며, 중미지역에서 엑스터시를 포함한 ATS 남용률은 세계수준인 0.7% 상회하는 1.3%를 기록함
- ▶ 유럽에서 엑스터시를 포함한 ATS 남용률은 세계수준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엑스터시의 남용률은 0.7%로 세계수준인 0.4%보다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됨
- ▶ 서·중부 유럽에서 새로운 향정물질(New Psychoactive Substances, NPS) 남용문제가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으며 러시아에서 ATS 남용은 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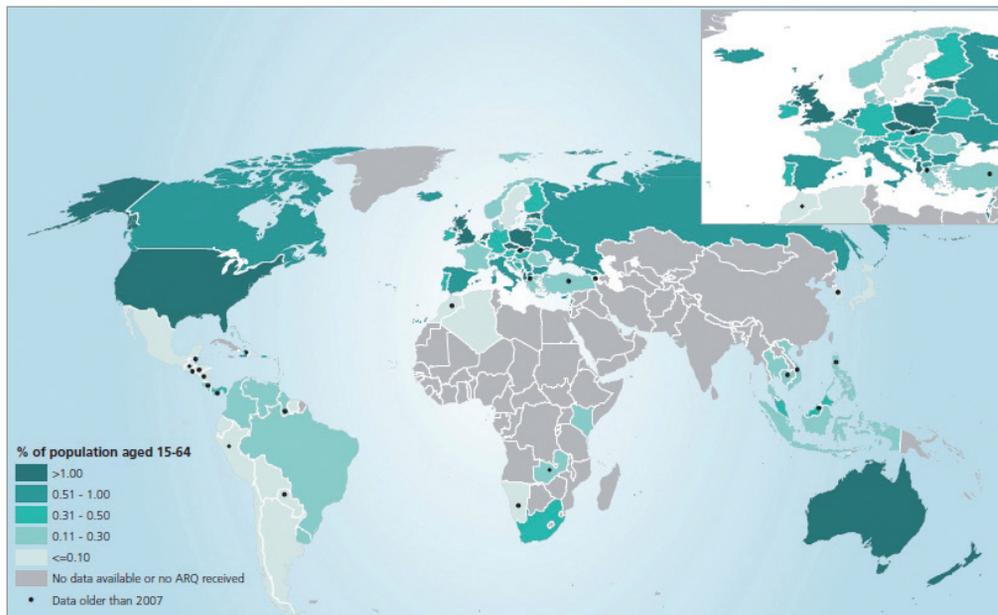
6) China National Narcotics Control Commission, Annual Report on Drug Control in China [Beijing, 2012]

그림 2-9 세계 암페타민 남용률 (2011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그림 2-10 세계 엑스터시 남용률 (2011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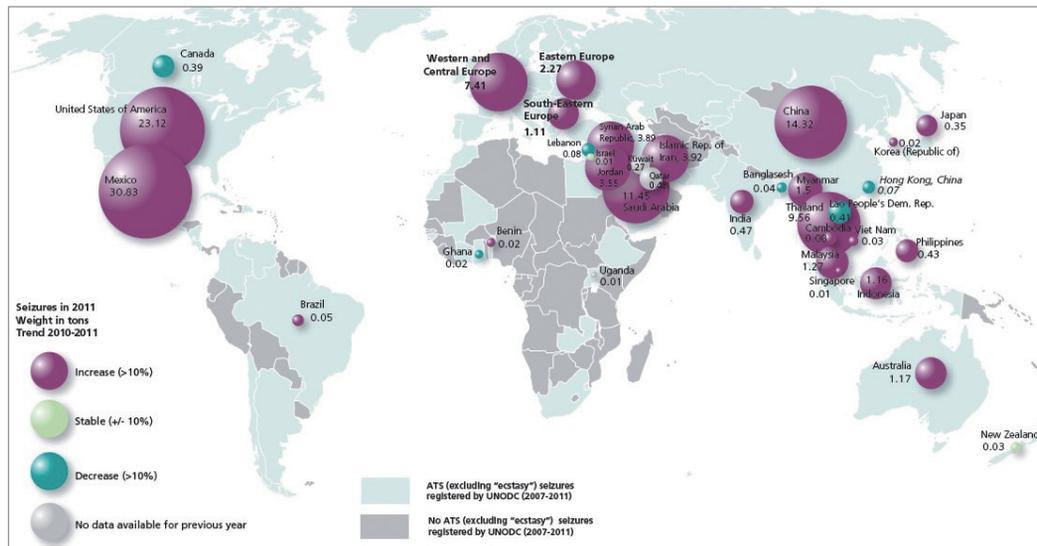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3. 생산 동향

- ▶ 메트암페타민 밀조시설은 전 지역에서 보고되고 있는데 이들 대부분이 미국에 위치하고 있고 2010년 2,754개에서 2011년 11,116개로 4배 이상 증가했으며,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각각 159개, 35개의 밀조시설이 적발됨
- ▶ 유럽에서는 총 350개의 메트암페타민 밀조시설이 적발되었으며 이 가운데 338개는 체코에서 적발되었고, 벨기에 1개와 러시아에서 4개의 밀조시설 적발이 보고되었고 폴란드에서 2개의 밀조시설이 적발되었는데 이는 2007년 이후 처음이며 오세아니아 지역 특히 뉴질랜드에서는 109개의 밀조시설이 적발됨

그림 2-11 ATS 압수량 (2011년 현재)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4. 밀매 동향

- ▶ 암페타민의 전세계 압수량은 2011년 31톤에서 2012년 24톤으로 감소했으나 2005년에서 2011년 사이 19톤에서 33톤이 압수된 것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 10년 연속 사우디아라비아는 단일 국가로는 가장 많은 암페타민 압수량을 기록했으며 Captagon<sup>7)</sup>의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2012년 4,800만 정이 압수됨
- ▶ 2008년과 20102년 사이 세계 메트암페타민 시장은 급속도로 팽창하여 2001년부터 2007년 동안 19톤에서 28톤으로 유지되던 압수량이 2012년 90톤을 넘어섰으며 2012년 한 해 동안 북미와 동·동남아시아의 압수량 또한 증가세임
- ▶ 2012년 멕시코에서 31.55톤의 메트암페타민이 압수되어 2011년 30.86톤보다 약 2% 증가함
- ▶ 미국에서 정제형 메트암페타민의 압수량은 2011년 9.7톤이었던 것이 2012년 20톤으로 크게 늘었고 정부 보고에 따르면 순도가 높아지는 동안 가격은 계속 하락하는 추세임
- ▶ 동·동남 아시아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ATS 시장<sup>8)</sup>으로 2012년 이 지역의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높은 수준으로 브루나이, 캄보디아, 중국, 인도네시아, 일본, 라오스, 싱가포르, 태국과 베트남에서 증가세를 보임
- ▶ 유럽에서 메트암페타민 압수량은 2011년 1,582kg에서 2012년 923kg으로 하락하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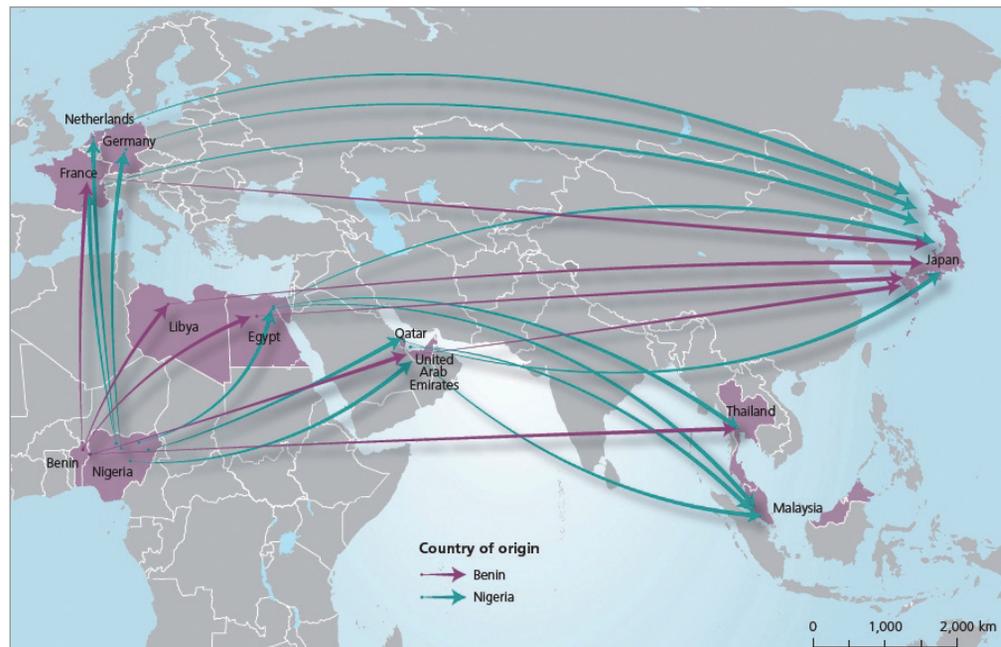
7) 페네틸린(Fenethyline)의 상표명으로 압수된 captagon은 암페타민과 카페인, 테오필린이 포함되어 있음

8) UNODC, "Global SMART Update", vol. 10, September 2013

## 2013 마약류 범죄백서

- ▶ 2011년 3.7톤이던 엑스터시 압수량이 2012년 4톤을 증가하였고 2010년과 2011년의 54개국 엑스터시류 물질 압수량과 비교하여 2012년에 36%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2002년과 2007년 기록보다는 낮은 수준임
- ▶ 2011년 엑스터시류 물질을 100kg이상 압수한 8개 국가는 호주, 중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터키, 영국, 미국, 베트남임
- ▶ UNODC Global SMART Programme(합성마약 감시 프로그램)의 최근 보고에 따르면 동·동남 아시아 지역의 엑스터시 압수량은 수년간 변동을 거듭했으나 2012년 압수량은 540만 정으로 2011년 압수량 160만 정보다 세 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2007년 560만정이 압수된 이후 최고 압수량임. 특히 인도네시아에서는 2011년 110만 정에서 2012년 430만정이 압수되어 약 400% 가까운 증가를 보이며 동·동남 아시아 지역 압수량의 80%를 차지함

**그림 2-12** 베냉과 나이지리아에서 동·동남아시아로 향하는 메트암페타민 밀매 루트



※ 출처: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5. 국내 유통추세

### 가. 메트암페타민 밀조 추이

- ▶ 1980년대까지 한국이 주요 메트암페타민 밀조 국가로서 전 세계 메트암페타민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한 바 있으나, 1990년대 들어 한국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메트암페타민 밀조 조직이 거의 와해되어 1990년대 후반부터는 외국산 메트암페타민이 밀반입되고 있음

### 나. 메트암페타민 밀거래가격의 추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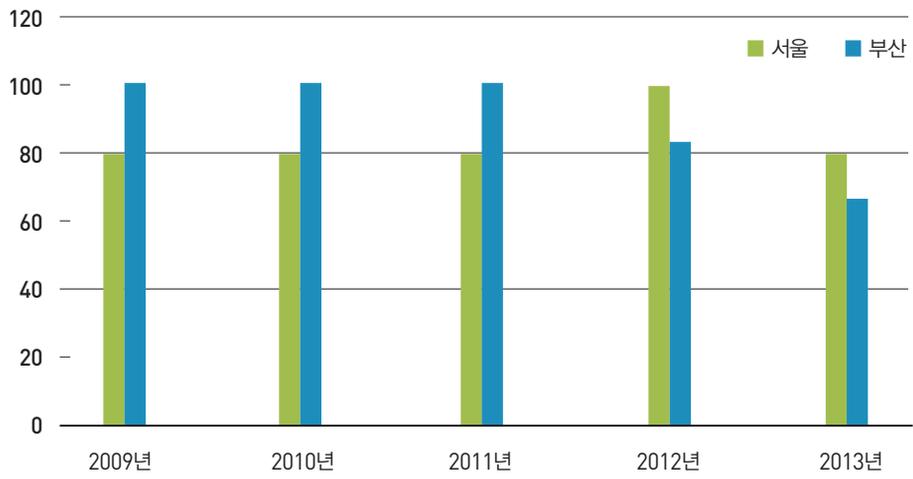
- ▶ 검찰의 단속활동이 체계적으로 개시되기 전인 1988년경 5,000원 내지 10,000원에 거래되던 1회 사용분 메트암페타민의 가격은 검찰의 단속활동이 강화되자 1991년경부터 10배 이상 폭등하였으나, 2000년에는 유통물량의 급증과 공급사범들의 박리다매 전략으로 g당 소매가격이 대폭 하락하였다가 2004년부터 다시 상승하였고, 1회 사용분의 가격은 2001년부터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고 있음

표 2-6 메트암페타민 연도별 밀거래가격

(단위: 만원)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g당 소매	서울	130	90	90	50	70	80	79	80	100	80
	부산	46	100	100	100	100	100	100	100	85	70
1회 사용분	서울	9	9	9	10	10	10	10	10	10	10
	부산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그림 2-13 메트암페타민 g당 소매 및 1회분 가격 추이



## 다. 향정사범<sup>9)</sup>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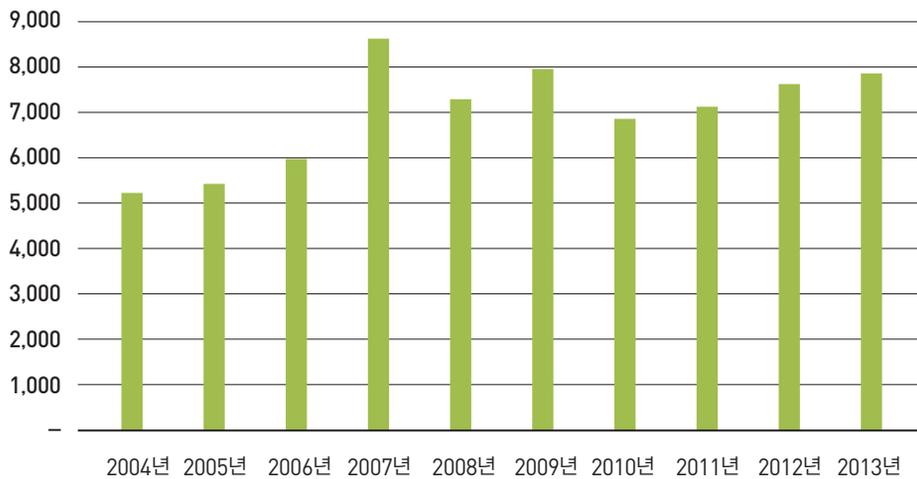
표 2-7 연도별 향정사범 단속추이

(단위: 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속인원	5,313	5,354	6,006	8,521	7,457	7,965	6,771	7,226	7,631	7,902
증감률(%)	12.4	0.8	12.2	41.9	-12.5	6.8	-15.0	6.7	5.6	3.6

- ▶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던 향정사범은 1999년 이후 큰 변화를 보이지 않다가 2003년 전년대비 40.3% 대폭 감소한 이래 2007년까지 증가, 2010년까지 감소하다 다시 2011년도부터 증가 추세임
- ▶ 2013년도 향정사범이 전체 마약류사범의 80.9%를 점유하여 국내 주종 마약류임을 반영

그림 2-14 향정사범 추세



9) 암페타민류 각성제(ATS)로서 메트암페타민, 암페타민, MDMA(일명, 엑스터시) 등을 포함

**2008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슈도에페드린이 함유된 감기약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 ▶ 2008. 1. 중국 복건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의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이 혼합된 감기약 약 2.2kg을 차봉지에 넣어 밀폐하는 방법으로 위장하여 국제우편물로 밀반입

○○○ 사건 (2008. 1. 성남지청)

- ▶ 2008. 1.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90g을 꽃감 상자 안에 은닉하여 배편으로 인천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1. 수원지검)

- ▶ 2007. 11. 일본 하네다 공항에서 엑스터시 약 8g을 자신의 점퍼 주머니에 은닉한 채 김포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8. 2. 대전지검)

- ▶ 2008. 1.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0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4. 청주지검)

- ▶ 2008. 4. 중국 북경공항에서 필로폰 약 50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항문 속에 감추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남북정기운항선을 이용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 ▶ 2008. 4. 중국에서 조선족 ○○○○의 알선으로 필로폰 약 200g을 매수하여 인진쑤 컨테이너에 은닉한 후 중국 길림성 훈춘시에 있는 세관을 통과하고, 북한 나진항에서 남북정기운항선인 추성호에 선적하여 부산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5. 부산지검)

- ▶ 2008. 5. ○○○(중국 거주)과 공모하여 중국에서 필로폰 1,063g을 국제특송우편으로 수취하여 밀반입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08. 5. 수원지검)**

- ▶ 2008. 4. 미국에 거주하는 ○ ○ ○ ○로 하여금 엑스터시 10.1g을 지퍼형 비닐봉지로 포장하여 페덱스 특송화물로 발송하게 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5. 인천지검)**

- ▶ 2008. 4. 평소 알고 지내던 ○ ○ ○ 이 중국에서 필로폰 약 360g을 보푸라기 제거용 롤러 등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송부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8. 7. 포항지청)**

- ▶ 2008. 7.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50g을 각 4개의 비닐 팩에 담아 먼지제거용 롤러 2개에 각 2개씩 넣고,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7. 성남지청)**

- ▶ 2008. 7. 14. 중국에서 소포의 밑바닥에 필로폰 약 98.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8. 8. 포항지청)**

- ▶ 2008. 8. 14. 중국에서 필로폰 320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9. 서울중앙지검)**

- ▶ 2008. 8. 29. 중국 심양에서 필로폰 304.45g을 팬티 아래 부분에 부착하여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마약류 원료물질 슈도에페드린 밀수 사건 (2008. 9. 인천지검)**

- ▶ 2008. 9.경 국내에 불법체류중인 중국인 ○○○는 중국에서 슈도에페드린<sup>10]</sup>을 국내로 발송하면 이를 수령하는 방법으로 총 6회에 걸쳐 슈도에페드린 합계 6,886g을 중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9. 서울서부지검)

- ▶ 2008. 9. 8. 필로폰 약 220g을 비닐로 싸 다음 사타구니 속에 감춘 채 중국 심양에서 출발하는 비행기를 타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8. 9. 부산지검)

- ▶ 2008. 2. 16. 필로폰 약 216.97g을 반으로 나누어 비닐봉지에 담고 바지 호주머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대련항에서 인천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 ▶ 2008. 10. 13.경 중국 길림성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k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필로폰 던지기<sup>11]</sup>사범 밀수 사건 (2008. 10. 수원지검)**

- ▶ 2008. 10. 13.경 중국 연길시에서 국제특급우편을 통해 필로폰 약 1kg을 수원구치소에 수감 중인 ○○○, ○○○은 필로폰 매매로 재판중인 ○○○이 선처 받을 수 있도록 속칭 ‘던지기’ 작업을 하기로 공모작업 대상자인 ○○○의 주소지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10] 감기약의 원료로 사용되는 약품

11] 마약류 사범이 형사처벌상의 선처를 받을 목적으로 그 마약류 사범의 동료나 조직원이 그 정을 모르는 상대방에게 접근하여 자신들이 준비한 마약을 수수·매수하도록 유도하거나 상대방이 이를 수수·매수한 것처럼 조작한 후, 수사기관에 허위 제보하여 상대방이 검거되도록 하고 선처나 감형을 받게 하는 불법적인 수법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 ▶ 2008. 12. 3. 여행용 가방 안 양쪽 측면에 필로폰 약 3kg을 부착하는 방법으로 은닉한 채 카타르 도하 공항을 출발하여 일본 오사카 공항에서 환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 ▶ 2008. 12. 19.경 터키 이스탄불에서 필로폰 약 856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등 일본인 밀수 사건 (2008. 12. 인천지검)

- ▶ 2008. 12. 22. 일본인이 필로폰을 터키서 한국을 경유 다시 일본으로 밀반입할 목적으로 여행용 가방 2개에 필로폰 1kg과 1.7kg을 각 나누어 은닉한 뒤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2009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등 대만인 밀수 사건 (2009. 1. 인천지검)

- ▶ 2009. 1.경 대만인 ○○○은 중국인 일명 ‘○○’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 8천 인민폐 (한화 160만원 상당)를 받는 조건으로 필로폰 1,181g이 은닉되어 있는 여행용 가방을 가지고 중국 푸둥 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하고, ○○○ 등은 중국 내 국제밀수조직 총책인 ○○○으로부터 여행경비 및 사례금으로 10만엔(한화 140만원 상당)을 받는 조건으로 위 ○○○으로부터 건네받은 필로폰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을 소지한 채 다시 일본으로 밀수출하려다 적발

○○○ 밀수 사건 (2009. 1. 진주지청)

- ▶ 2009. 1. 13. 중국 연길시에 있는 동북아세아호텔에서 조선족 남자로부터 필로폰 약 71.15g을 매수하고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2. 서울북부지검)

- ▶ 2009. 2. 7. 필로폰 약 99.6g을 자신의 팬티 속에 은닉 후 중국 청도발 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일본인 여성 밀수 사건 (2009. 2. 인천지검)

- ▶ 2009. 2. 20.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31g을 액자 2개에 나누어 은닉하여 여행용 가방에 담아 카타르 항공편에 탑승한 후 카타르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를 경유,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남아프리카인 밀수 사건 (2009. 3. 인천지검)

- ▶ 2009. 3. 12.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필로폰 1,070g을 서류가방에 넣고, 이를 여행용 가방에 은닉한 채 요하네스버그 공항을 출발, 카타르 도하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3. 서울중앙지검)

- ▶ 2009. 3. 18. 중국으로부터 녹차 상자에 은닉된 필로폰 235.5g을 인천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3. 속초지청)

- ▶ 2009. 3. 23.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27.9g을 국제여객선을 이용하여 속초국제 여객터미널을 통해 밀반입

엑스터시 등 밀수 사건 (2009. 4. 안산지청)

- ▶ 2009. 4. 9. 중국에 거주하는 성명불상자가 엑스터시 298정, 케타민 82g을 국제 우편물로 발송한 것을 수령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4. 인천지검)

- ▶ 2009. 4. 23. 필로폰 195.24g을 여행용 가방 안에 은닉한 상태로 중국 연길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나이지리아 마약조직원 밀수 사건 (2009. 5. 인천지검)**

- ▶ 2009. 5.경 ○○○ ○○○ ○○(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남아프리카에서 운동화 두 켤레 밑창에 필로폰 1,017g을 나누어 은닉한 뒤 여행용 가방에 넣고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경유하여 한국에 입국하여 밀수하고, 서울 중구 소재 뉴서울호텔 1014호에서 ○○○ ○○(일본국적 여성)와 ○○ ○○○(일본 국적 여성)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하고, ○○○ ○○와 ○○ ○○○는 위 호텔 1111호에서 ○○○ ○○○○ ○(나이지리아 출신 일본 귀화 흑인)에게 위 필로폰을 전달

**다국적 마약 밀수 사건 (2009. 6. 인천지검)**

- ▶ 2009. 6. 22. ○○ ○○○○ ○○○○(남아프리카 국적 백인)는 필로폰 1,041g을 가방에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 싱가포르에서 환승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7. 부산지검)**

- ▶ 2009. 7. 26. 필로폰 95.62g을 화장품용기 2개 안에 은닉한 채 중국 상해 푸둥공항에서 비행기를 타고 김해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7. 인천지검)**

- ▶ 2009. 6. 26. 필로폰 205g을 자전거 타이어 안에 은닉한 채 중국 단둥항에서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8. 부산지검)**

- ▶ 2009. 8. 20. 필로폰 40g을 콘돔에 넣어 자신의 몸 속에 은닉하고, 필로폰 201g을 보이차 포장박스 2개에 은닉하여 중국 위해에서 비행기에 탑승한 후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9. 9. 인천지검)**

- ▶ 2009. 9. 11. 필로폰 137.94g을 담뱃갑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09. 10. 인천지검)

- ▶ 2009. 9. 28. 필로폰 400g을 플라스틱 파이프 36개 속에 나눠 넣고 스티로폼 박스로 은닉한 뒤 보따리상을 이용하여 중국에서 인천항으로 밀반입

태국인 야바 밀수 사건 (2009. 10. 군산지청)

- ▶ 2009. 10. 17. 야바 160정을 국제특급우편을 이용하여 밀반입

○○○ 밀수 사건 (2009. 12. 청주지검)

- ▶ 2009. 11. 28. 중국에서 필로폰 295.6g을 여성용 거들을 이용하여 자신의 몸 안에 은닉한 채 인천항으로 밀반입

장애인 이용 밀수 사건 (2009. 12. 대구지검)

- ▶ 2009. 5. 11. 남편 ○○○가 필로폰 수수 등으로 구속되자 ○○○의 선처를 위하여 공적작업<sup>12)</sup>을 하기로 공모하고,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을 포섭, 필로폰 41.05g을 팬티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12] 다른 마약범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도운 공적사항을 만들기 위하여 다른 사람을 상대로 마약범죄를 저지르도록 유도하여 수사기관이 체포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

**2010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 ▶ 2009. 12.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104g을 팬티 속에 은닉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국내 조직포력배와 연계된 국제 마약 밀수 사건 (2010. 1. 서울중앙지검)**

- ▶ 2010. 1. 6.경 멕시코 자포판시에서 필로폰 약 48.2g을 앨범 속에 넣고 박스로 포장한 다음 국제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0. 3. 인천지검)

- ▶ 2010. 3.경 중국 대련에서 두꺼운 사전 안에 필로폰 약 987.9g을 은닉한 후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중국인 ○○○ 밀수 사건 (2010. 5. 인천지검)**

- ▶ 2010. 5.경 ○○○은 중국 위해에서 중국거주 ○○○으로부터 오디오스피커 안에 은닉된 필로폰 약 703.3g을 건네받아 인천항을 통하여 밀반입

**루마니아인 ○○○○○○○○○ 밀수 사건 (2010. 8. 인천지검)**

- ▶ 2010. 8.경 필로폰 1,978.4g을 불투명 테이프로 포장하여 쿠킹호일로 감싼 후 여행용 가방 옆면에 은닉하고 가나를 출발하여 두바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 ▶ 2010. 8.경 중국에 있는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80.16g을 휴대폰 배터리 케이스에 은닉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밀수 사건 (2010. 9. 인천지검)

- ▶ 2010. 9.경 중국에 있는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137.79g을 비닐봉지 3개에 나누어 담고 그 중 1개는 소형 액자 내부에, 2개는 중형액자 내부에 각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0. 9. 성남지청)

- ▶ 2010. 9.경 중국 거주 성명불상자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300g을 자동차 HID램프 안장기 15개에 은닉하여 자동차부품 화물로 위장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0. 10. 서울남부지검)

- ▶ 2010. 3.경 중국 마카오에 있는 ○○○과 공모하여 필로폰 약 95g을 컴퓨터용 가방 밀면과 측면에 비닐봉지 15개로 나누어 은닉하여 특송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엑스터시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 ▶ 2010. 10.경 ○○○이 엑스터시 400정을 생리대 속에 은닉한 상태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10. 10. 인천지검)

- ▶ 2010. 10.경 보따리상을 통하여 필로폰 410.8g을 옷상자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싱가포르인 밀수출 사건 (2010. 11. 인천지검)

- ▶ 2010. 11.경 영양갱과 비누로 위장한 필로폰 약 1kg을 말레이시아로 밀반입하려고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다가 적발

**2011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밀수 사건 (2011. 1. 춘천지검)

- ▶ 2011. 1.경 중국에서 필로폰 약 45g을 여행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등 밀수 사건 (2011. 2. 부산지검)

- ▶ 2011. 2.경 중국 심양에서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2kg을 은닉하여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

**2개국에 걸친 밀수 사건 (2011. 2. 제주지검)**

- ▶ 2010. 12.경 마카오에서 필로폰 약 13g을 몸에 은닉하고, 2011. 1.경 중국 광저우에서 필로폰 30g을 몸에 은닉하여 각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루마니아인 밀수 사건 (2011. 3. 인천지검)**

- ▶ 2011. 3.경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1,07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모로코, 카타르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중국인(조선족) 밀수 사건 (2011. 3. 인천지검)**

- ▶ 2011. 3.경 중국 청도에서 필로폰 약 64.5g을 치약튜브 안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탈북자 가족 밀수 사건 (2011. 4. 평택지청)**

- ▶ 2010. 11.경부터 2011. 2.경까지 5회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00g을 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캐나다 교포 및 유학생 밀수 사건 (2011. 4. 서울지방경찰청)**

- ▶ 2011. 3.경 캐나다에서 필로폰 약 1.2kg을 국제특송우편 화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나이지리아인 주도 밀수 사건 (2011. 4. 인천지검)**

- ▶ 2011. 4.경 운반책임 한국여성을 이용하여 여행 가방에 필로폰 약 3,159g을 은닉한 채 아프리카 말리를 출발, 프랑스를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1. 5. 서울남부지검)

- ▶ 2011. 4.경 4회에 걸쳐 필로폰 약 62g을 가방에 은닉한 채 화물로 위장, 중국 항공기를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나이지리아 마약조직 밀수 사건 (2011. 6. 인천지검)**

- ▶ 2011. 6.경 운반책임 미국 여성을 이용하여 가방에 필로폰 약 2,603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출발, 홍콩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보따리상 이용 밀수 사건 (2011. 6. 인천지검)**

- ▶ 2011. 6.경 중국 청도항에서 보따리상을 통하여 필로폰 약 150g을 인천항으로 밀반입

**조직폭력배(청주지역 폭력조직 '신석만이파' 부두목) 연루 밀수 사건 (2011. 7. 청주지검)**

- ▶ 2010. 3.경부터 2011. 6.경까지 3회에 걸쳐 태국에서 필로폰 약 37.7g을 국제 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중국마약조직 개입 밀수 사건 (2011. 9. 인천지검)**

- ▶ 2011. 9.경 중국 청도에서 중국마약조직원으로부터 필로폰 약 2,017g이 든 수화물 가방을 건네받아 이를 휴대하고 중국 동방항공기에 탑승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지계꾼에 의한 밀수 사건 (2011. 10. 서울중앙지검)**

- ▶ 2011. 7.경부터 같은 해 10.경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중국에서 필로폰 약 220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국제특송우편 화물이용 밀수 사건 (2011. 11. 고양지청)**

- ▶ 2011.경 중국 광저우에서 조립식 자전거 부품속에 필로폰 약 97.81g을 은닉한 후 국제특송화물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제3국 밀수출 기도 사건 (2011. 12. 인천지검)**

- ▶ 2011. 11.경 필리핀에서 필로폰 약 2kg이 은닉된 여행 가방을 소지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괌으로 밀반입하기 위해 출국하려다 적발

**2012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조직폭력배(인천 폭력조직 '꿀망파' 행동대원) 연루 밀수사건 (2012. 2. 서울중앙지검)**

- ▶ 2012. 2.경 중국 단둥에서 ○○○와 공모하여 필로폰 약 98g을 신체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 밀수사건 (2012. 3. 인천지검)**

- ▶ 2012. 3.경 필리핀에서 ○○○와 공모하여 골프 캐디백 밑부분에 필로폰 1,400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사건 (2012. 7. 인천지검)**

- ▶ 2012. 7.경 홍콩에서 캐리어백에 필로폰 1,003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캄보디아産 필로폰 밀수사건 (2012. 7. 의정부지검)**

- ▶ 2012. 7.경 캄보디아에서 먹지로 필로폰 616.34g을 감싼 후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필리핀 가사도우미 밀수사건 (2012. 8. 부산동부지청)**

- ▶ 2012. 7.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필리핀에서 필로폰 7.4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영국인 밀수사건 (2012. 8. 인천지검)**

- ▶ 2012. 8.경 피지에서 필로폰 2,491g을 여행용 트렁크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대만 마약조직과 국내폭력조직 연계 밀수사건 (2012. 8. 부산지검)**

- ▶ 2012. 6.경부터 8.경까지 부산 영도파 행동대원들은 대만 마약밀수조직과 공모하여 2회에 걸쳐 대만으로부터 필로폰 5kg을 국내로 밀반입

**보따리상 이용 밀수사건 (2012. 8. 부산지검)**

- ▶ 2012. 3.경부터 8.경까지 보따리상과 공모하여 13회에 걸쳐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3.9kg을 국내로 밀반입

○○○ 밀수사건 (2012. 8. 수원지검)

- ▶ 2012. 8.경 중국 단둥에서 필로폰 215.64g을 신체에 은닉하여 인천항으로 밀반입

**태국인 야바 밀수사건 (2012. 9. 인천지검)**

- ▶ 2012. 8.경 국제우편물을 통해 태국으로부터 야바 400정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슈도에페드린 밀수사건 (2012. 9. 인천지검)**

- ▶ 2012. 8.경부터 9.경까지 5회에 걸쳐 국제우편물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제조 원료물질인 슈도에페드린 9,943정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사건 (2012. 9. 안양지청)

- ▶ 2012. 9.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중국으로부터 필로폰 40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일본야쿠자 연계 밀수사건 (2012. 10. 인천지검)**

- ▶ 2012. 10.경 일본 야쿠자 조직과 연계된 ○○○은 중국 상해에서 필로폰 7.4kg을 화물선에 은닉하여 포항항으로 밀반입한 후, 이를 다시 부산항에서 일본으로 밀수출

**싱가포르인 밀수사건 (2012. 10. 창원지검)**

- ▶ 2012. 10. 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말레이시아로부터 필로폰 11.66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독일인 밀수사건 (2012. 11. 인천지검)**

- ▶ 2012. 11. 경 케냐 마약조직과 연계된 독일인이 케냐에서 필로폰 1.76kg을 배낭 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2013년도 주요 암페타민류 밀수 사건**

**○○○ 밀수사건 (2013. 1. 부산지검)**

- ▶ 2013. 1. 경 중국으로부터 ○○○와 공모하여 신발 6켤레에 필로폰 2,166g을 은닉하여 청주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1. 안양지청)**

- ▶ 2013. 1. 경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23g을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2. 안양지청)**

- ▶ 2013. 2. 경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14g을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3. 안산지청)**

- ▶ 2013. 2. 경 중국으로부터 콘돔과 비닐로 포장한 필로폰 43.49g을 항문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밀수출사건 (2013. 3. 인천지검)**

- ▶ 2013. 3. 10. 필로폰 2kg을 신체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호주로 밀반입하려다 적발

○○○ 밀수사건 (2013. 3. 성남지청)

- ▶ 2013. 3. 11. 미국 로스앤젤레스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1.3kg을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출사건 (2013. 4. 인천지검)

- ▶ 2013. 4. 2. 아프리카 말리에서 출발하여 프랑스 및 인천을 경유, 남태평양 피지로 필로폰 4kg을 수하물 가방 2개에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다 적발

○○○ 밀수사건 (2013. 5. 수원지검)

- ▶ 2013. 5. 1. 중국 연태공항로부터 인천국제공항으로 필로폰 약 51g을 팬티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5. 인천지검)

- ▶ 2013. 5. 9. 마카오를 출발, 인천국제공항 및 김해국제공항을 경유하여 일본으로 필로폰 6.24kg 여행용 가방 속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7. 인천지검)

- ▶ 2013. 7.경 중국으로부터 인천항을 통하여 필로폰 약 127g을 팬티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8. 수원지검)

- ▶ 2013. 7.경 중국으로부터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필로폰 약 540g을 복대에 넣어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8. 수원지검)

- ▶ 2013. 7.경 중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30.5g을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7. 인천지검)

- ▶ 2013. 8. 19. 중국으로부터 기계부품 안에 필로폰 974g을 은닉하여 보따리상을 통하여 인천항을 통하여 밀반입

**태국인 야바 밀수 사건 (2013. 8. 군산지청)**

- ▶ 2013. 8.경 태국으로부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야바 176정을 밀반입

○○○ MDMA(엑스터시) 밀수사건 (2013. 9. 부산지검)

- ▶ 2013. 9. 11. 미국으로부터 MDMA 100정을 팬티에 은닉하여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10. 인천지검)

- ▶ 2013. 10. 21. 프랑스 파리에서 출발하여 인천을 경유, 남태평양 피지로 여행용 가방 밑바닥에 필로폰 약 3kg을 은닉하여 밀반입하려다 적발

○○○ 밀수사건 (2013. 10. 춘천지검)

- ▶ 2013. 10. 21. 태국으로부터 옷 주머니 안에 필로폰 27.7g을 은닉하여 밀반입

**태국인 야바 밀수 사건 (2013. 11. 군산지청)**

- ▶ 2013. 11.경 태국으로부터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야바 2,028정을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11. 인천지검)

- ▶ 2013. 11.경 미국으로부터 국제특송우편물을 이용하여 필로폰 약 516g을 밀반입

○○○ 밀수사건 (2013. 12. 인천지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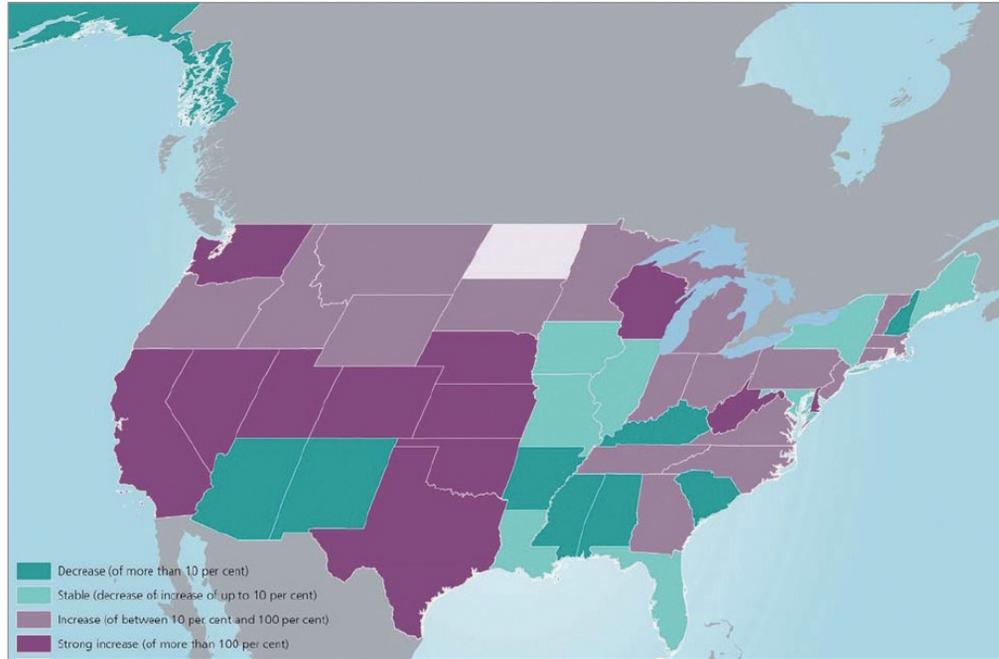
- ▶ 2013. 12. 10. 중국에서 대형 커피머신 2개에 은닉하여 필로폰 5.6kg을 인천항을 통하여 밀반입

## 제4절 대마

### 1. 세계 개요

- ▶ 대마는 거의 모든 국가에서 생산되는 동시에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남용되는 마약류로, 2011년 15~64세 인구 가운데 1억2천9백만~2억3천만 명이 최소 한 번 이상 대마류를 경험하였으며, 2009년 이후부터 아시아와 아메리카 지역에서 남용률 증가를 보임
- ▶ 세계 평균보다 높은 남용률을 보이는 지역은 서·중앙 아프리카 12.4%, 오세아니아 특히 호주와 뉴질랜드 10.9%, 북미 10.7%, 서·중부 유럽 7.6% 등으로 북미와 서·중부 유럽 대부분의 지역에서 대마류 남용은 안정 또는 감소세임
- ▶ 북미에서 압수된 대마초(cannabis herb)의 양은 세계 압수량의 절반에 해당하며 상당량이 남미와 아프리카 지역에서도 압수되고 있고,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는 여전히 대마 수지(cannabis resin) 최대 생산국으로 서·중부 유럽, 북아프리카, 중동, 서남아시아 지역에서 대마 수지 압수량이 꾸준히 집중되고 있음
- ▶ 모로코 산(産) 대마 수지가 많이 소비되는 서·중부 유럽 시장은 대마초 생산 및 소비에 영향을 받아 실내 경작같은 발전된 기술로 더 나은 품질과 많은 양의 대마초를 생산함

그림 2-15 2005~2007년부터 2008~2010년 미국 대마 제거 현황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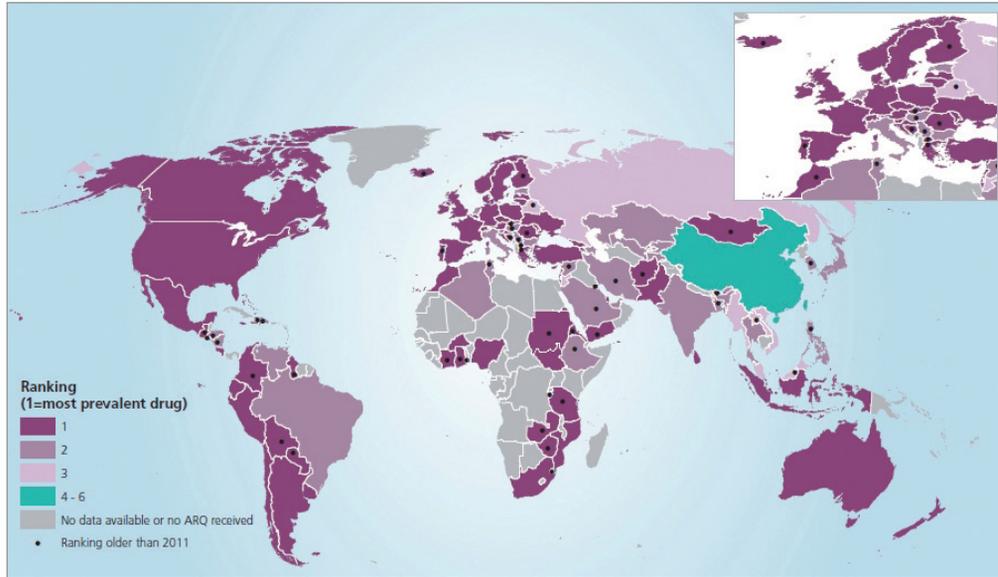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2. 소비(남용) 동향

- ▶ 아프리카 지역에서 15~64세의 대마류 남용률은 7.5%로 세계 수준인 3.9%에 비해 높은 편으로 서·중앙 아프리카 지역의 15~64세의 대마류 남용률은 12.4%로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됨
- ▶ 아메리카 지역에서 대마류는 가장 많이 남용되는 불법 마약류 중 하나로 15~64세 인구의 남용률은 7.9%로 세계 평균의 두 배되는 수치임
- ▶ 북미의 경우 작년 한 해 동안 인구의 10.7%가 대마류를 남용했으며 미국의 대마류 남용률은 2011년 11.5%에서 2012년 12.1%로 증가했고, 2012년 캐나다에서 15세 이상 대마류 남용자는 변함이 없었으나 25세 이상 대마류 남용자는 2011년 6.7%에서 2012년 8.4% 증가, 멕시코에서 남성 대마류 남용자 수는 2008년 1.7%에서 2011년 2.2%로 증가함
- ▶ 안데스 지역의 네 국가에서 대학생을 상대로 대마류 남용을 조사한 결과 콜롬비아에서 15.2%, 볼리비아에서 3.6%가 보고되었는데 이는 2009년 4.8%, 2012년 7.9%를 기록해 전체적으로 증가세를 보임
- ▶ 아시아 지역 역시 대마류는 가장 널리 남용되고 있으며 15~64세의 남용률은 1.9%로 남아시아의 대마류 남용률은 3.5%, 몰디브의 남용률은 2.5%, 파키스탄은 15~64세 인구의 3.6%에 달하는 인구가 대마류를 남용하고 있으며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대마류 남용률은 세계 평균과 비슷함
- ▶ 유럽 지역에서 대마류 남용은 가장 흔하며 대략 3,090만 명이 남용자로 15~64세 인구의 5.6%이며 오세아니아 지역(호주와 뉴질랜드)에서 대마 남용률은 10.9%로 세계 평균의 두 배가 넘는 수치임

그림 2-16 2011년 남용률에 따른 대마류 순위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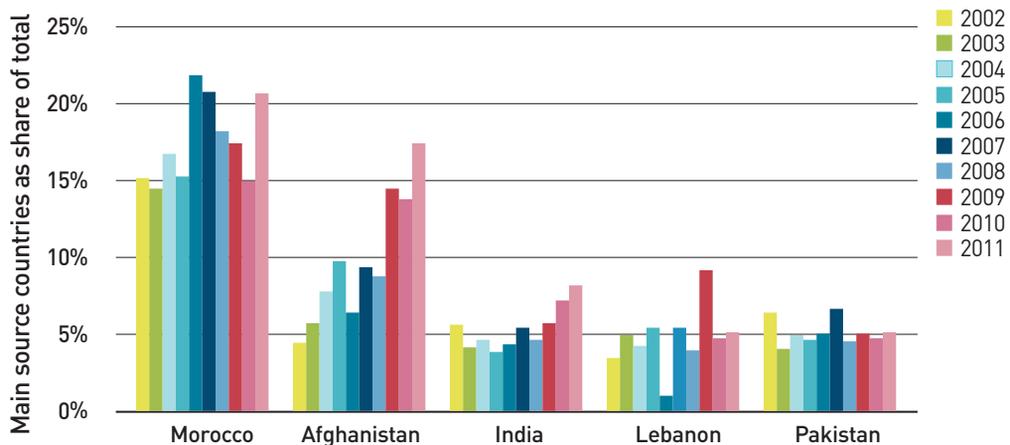
부록

### 3. 생산 동향

- ▶ 대마는 코카나 양귀비와는 다르게 다양한 환경에서도 잘 자라는 식물로 실내와 실외 경작 둘 다 가능하며, 개인의 소비를 위해 키우는 경우도 있지만 수익을 위해 재배하는 경우도 있음
- ▶ 대마초는 여러 나라에서 발견되지만, 대마 수지의 경우 몇몇 국가로 집중되고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가 가장 두드러짐
- ▶ 아프가니스탄의 대마 재배는 2012년 10,000ha로 2011년에 비해 17% 감소한 면적으로 이는 우르즈간 지역에서 2011년 1,000ha에서 2012년 100ha로 대폭 감소했지만 헥타르 당 높은 수확으로 인해 2012년 대마 수지 생산량은 8% 증가한 1,400톤이며, 모로코의 2012년 대마 재배 면적은 47,000ha로 2011년 47,500ha보다 소폭 감소했고 모로코 정부의 단속 노력으로 인해 2012년 5,000ha의 대마 재배지가 줄어들었고 대마 수지 연생산량도 760톤으로 안정적임

그림 2-17 대마수지 주요 공급 국가 (2002~2011)

Main source countries of cannabis resin, as reported by Member States, 2002-2011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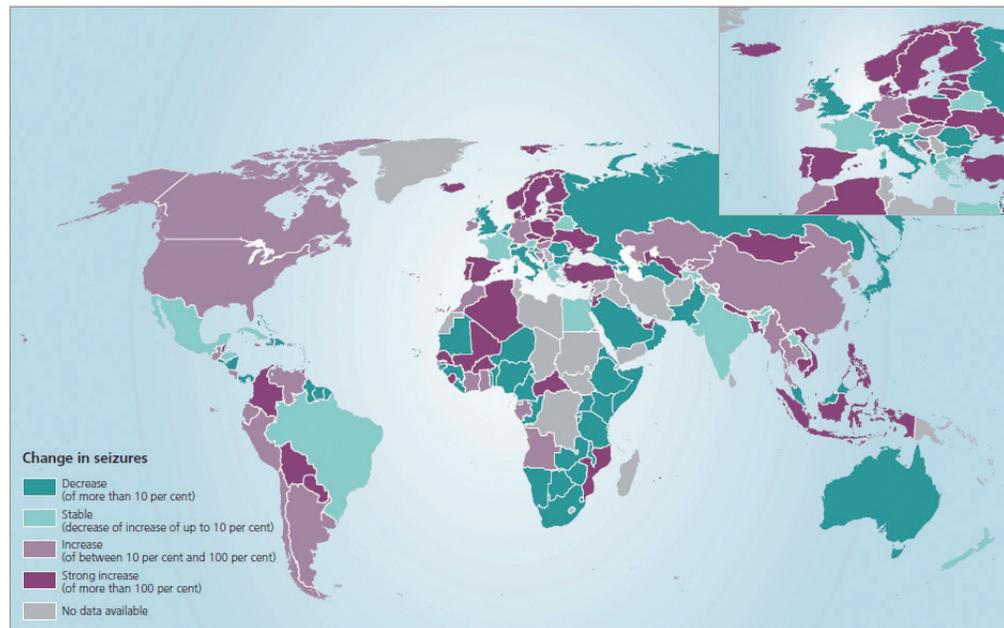
## 4. 밀매 동향

- ▶ 미국에서 압수된 대마초(cannabis herb)는 2011년 2,033톤에서 2012년 1,772톤으로 감소했으나 개별 사건으로 봤을 때 2011년 16,417건에서 2012년 18,968건으로 증가함
- ▶ 멕시코의 대마초 압수량은 2011년 1,799톤에서 2012년에는 39% 감소한 1,297톤을 기록했으며 이 중 멕시코를 최종 도착지로 하는 대마초는 58%, 미국을 최종 도착지로 하는 양은 32%로 도로망을 통한 밀매 방법이 주를 이뤘으나 작은 크기의 항공기나 선박을 이용하기도 함
- ▶ 2012년 나이지리아에서 대마초 압수량은 19% 증가한 반면 모로코와 이집트의 압수량은 전년과 비슷했으며 나이지리아는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1,778ha에 달하는 대마 재배지를 없앴
- ▶ 유럽의 대마초 압수량은 2011년 185톤에서 2012년 220톤으로 증가했는데 이는 터키의 대마 압수량이 증가한 것으로 2012년 한 해 동안 59%가 늘어남
- ▶ 아시아의 대마초 압수량은 안정화 단계로 인도의 대마초 압수량은 매년 100톤에 달했으나 2012년은 전년대비 60%가 하락함
- ▶ 오세아니아 지역에서 대마초는 가장 많이 압수되는 마약류로 2012년 뉴질랜드에서는 21% 증가한 693kg이 압수되었고, 호주의 경우 3% 증가한 2,339kg이 압수됨
- ▶ 전 세계에 걸쳐 경작 또는 생산되는 대마초와는 다르게 대마 수지는 아프가니스탄과 모로코에 집중되어 있는데, 11개의 유럽국가가 모로코를 대마 수지 생산국으로, 3개의 유럽국가가 아프가니스탄을 대마 수지 생산국으로 등재함

## 2013 마약류 범죄백서

- ▶ 2012년 스페인에서 대마 수지 압수량은 326톤으로 2011년 356톤보다 감소했고 압수된 대마 수지의 91%는 모로코 산(産)으로 밝혀졌고, 이탈리아와 영국의 압수량은 2012년 20톤이 조금 넘는 수준으로 안정적이며 프랑스에서의 압수량은 2011년 55톤에서 2012년 51톤으로 소폭 하향세임
- ▶ 모로코가 북아프리카 지역에서 대마 수지를 주로 생산하는 국가로 압수량은 2011년 126톤에서 2012년 137톤으로 증가했지만, 가장 많은 양이 압수된 곳은 알제리로 2011년 53톤에서 2012년 157톤으로 세 배가량 증가했는데 2013년 5월까지의 압수량은 62톤임
- ▶ 동남유럽 지역에서 대마 수지 압수량은 2011년 21톤에서 2012년 43톤으로 전세계 압수량의 4%를 차지했고, 터키는 2011년 21톤에서 2012년 27톤으로 증가함

그림 2-18 2002~2011년까지 대마초 압수 변화



※ 출처 : 유엔마약범죄사무소(UNODC) 발간 WORLD DRUG REPORT 2013

## 5. 국내 대마사범 추이

표 2-8 연도별 대마사범 및 대마초 압수량

(단위: 명)

연도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단속인원	1,231	1,032	835	1,170	1,045	1,712	1,837	1,189	1,042	1,177
압수량(kg)	36	18	21	22	93	213	44	84	2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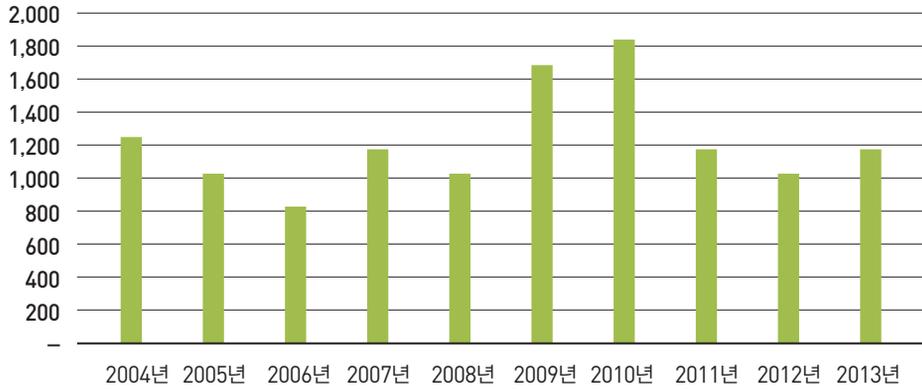
※ 압수량은 소수점 이하 자리를 반올림 처리

- ▶ 대마사범은 그동안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다가 최근 2010년을 정점으로 감소하기 시작하였다가 2013년도 다소 증가 하였는바, 이는 국제화에 따른 외국인 대마사범의 증가 및 외국 조기유학 내국인 등의 대마 흡연사범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대마초 밀반입 추이

- ▶ 1995년도 이전의 대마초 밀반입은 대부분의 밀반입자 자신들이 흡연할 목적으로 10~20g 단위의 소량을 밀반입하는 사례가 주종을 이룸
- ▶ 그러나 1996년도부터 밀반입 규모가 점차 대형화 되면서 영리목적 매매로 뚜렷한 전환 현상을 보이고 있는바, 주요 사례로는 2003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대마초 7kg 밀반입, 역시 나이지리아인의 아이스박스를 이용한 대마 8kg 밀반입, 2004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대마 3.5kg 밀반입, 2006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부터 대마 5kg 밀반입, 2009년도에 나이지리아인의 남아프리카 공화국으로부터 백인 여성을 이용한 대마 4.3kg 밀반입, 남아프리카공화국 흑인 여성의 대마 6kg 밀반입한 사례 등이 있으나 2005년도 이후에는 위와 같은 대규모 밀반입 현상보다는 대체로 국제우편물을 이용한 소규모 소비 목적의 대마 밀수사범이 적발되고 있는데, 주로 외국인 원어민 강사에 의해 밀수 및 흡연이 폭넓게 퍼져가고 있는 실정임

그림 2-19 대마사범 추세



2007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사건 (2007. 4. 대전지검)

- ▶ 2007. 4. 16. 대마 2.9g을 호주발 국제우편물로 밀반입하고, 같은 날 주거지에서 흡연기구인 속침 '워터파이프'를 이용하여 위 대마 중 0.04g을 흡연

○○○ 사건 (2007. 4. 의정부지검)

- ▶ 2007. 4.경 대마 약 11.2g을 랩으로 포장한 후 청바지에 은닉한 채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하고 흡연

○○○ 사건 (2007. 5. 포항지청)

- ▶ 2007. 2. 5. 태국 방콕에서 대마초 200g을 구입한 후 비닐랩에 넣고 압축하여 각자 팬티 속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하여 판매, 흡연

○○○○○ 사건 (2007. 5. 대전지검)

- ▶ 2007. 5.경 캐나다에서 대마 약 1.65g을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

○○○○○○○○○○○○○○○○ 사건 (2007. 6. 안산지청)

- ▶ 2007. 6.경 스리랑카에서 발송된 우편물 속에 대마수지 8.1g을 은닉하여 밀반입

한국형 대마 강정 사건 (2007. 7. 의정부지검)

- ▶ 2007. 6. 경 인터넷 웹사이트를 통해 대마강정 약 1,676.4g 및 신종 대마 엑기스(일명 버더<sup>13)</sup>) 약 5g을 주문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밀반입

○○○ 사건 (2007. 7. 흥성지청)

- ▶ 2007. 6. 27. 미국 하와이에서 사진액자 속에 대마 27g을 은닉한 후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07. 7. 대전지검)

- ▶ 2007. 6.경 미국에서 발송한 대마 약 2.4g을 은닉한 국제우편물을 이용하여 밀반입

○○○ 사건 (2007. 9. 청주지검)

- ▶ 2007. 9. 3. 스리랑카로부터 대마 약 6.9g을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밀반입

○○○○○○○ 사건 (2007. 9. 광주지검)

- ▶ 2007. 8.경 미국에서 비닐에 싸여있는 해쉬쉬 20.65g을 땅콩버터가 든 유리병 속에 넣어 국제우편물로 발송하도록 하여 밀반입

13] Budder는 해쉬쉬보다 수십 배 효력이 강력한 대마 엑기스 추출액

○○○○ 사건 (2007. 9. 울산지검)

- ▶ 2007. 8. 23. 해쉬쉬 1.2g을 주머니에 은닉하여 프랑스에서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하고, 같은 해 9. 7.경 프랑스 친구에게 부탁하여 해쉬쉬 10.4g을 국제우편물로 프랑스에서 한국으로 밀반입

○○○ 사건 (2007. 9. 서울중앙지검)

- ▶ 2007. 10.경 공모자인 인도에서 해쉬쉬 약 222g을 사진첩의 겉표지 안쪽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 (2007. 10. 수원지검)

- ▶ 2007. 10. 1.경 슬로베니아에서 대마 3.2g을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2008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사건 (2008. 1. 평택지청)

- ▶ 2007. 12. 29. 미국 조지아 주에서 마약류인 대마 약 4.6g을 의류속에 은닉하여 국제 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 (2008. 1. 인천지검)

- ▶ 2008. 1. 17. 태국 방콕에서 대마 농축액인 해쉬쉬<sup>14</sup> 약 300g과 엑스터시 약 10g을 약 100개로 나누어 비닐랩으로 감아 물과 함께 마신 후 몸속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08. 3. 부산지검)

- ▶ 2008. 3. 8. 중국 광주에서 해쉬쉬 약 18g을 사탕봉지 안에 은닉하여 상의 주머니에 넣은 채로 김해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14] Hashish는 대마초로부터 채취된 대마수지를 건조시키고 압착시켜 여러 가지 형태로 제조한 마약류로서 대마초보다 환각성이 8~10배 강함

○○○○ 사건 (2008. 3. 속초지청)

- ▶ 2008. 3. 8. 러시아에서 해쉬쉬오일<sup>15)</sup> 약 86.65g은 질레트 면도 크림통 안에 은닉하여 위 자루비노항과 속초항을 왕래하는 동춘호를 통하여 속초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 사건 (2008. 5. 속초지청)

- ▶ 2008. 5. 7. 캐나다에서 팬케이크 상자 안에 대마 약 27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 ○ ○ ○ ○ ○ ○ ○ ○ 사건 (2008. 5. 부산지검)

- ▶ 2008. 4. 24. 미국에서 땅콩 버터병 속에 대마 약 24.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 등 사건 (2008. 5. 인천지검)

- ▶ 2008. 5. 26.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 14kg을 여행용 가방에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을 통하여 밀반입

○○○○○ ○○○○ 사건 (2008. 6. 의정부지검)

- ▶ 2007. 12. 20. 주한미군 병사가 크리스마스 카드 속에 대마 4.6g을 은닉하여 미군사우편으로 밀반입

○○○○○ ○○○○ 사건 (2008. 7. 의정부지검)

- ▶ 2008. 4. 28. 주한미군 초청 계약근무자가 땅콩버터 병 속에 대마 19.8g이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15] Hashish Oil은 해쉬쉬를 반복 증류하여 추출되는 것으로 그 효능이 해쉬쉬 보다 2~3배 정도 강함

○○○○○○ 사건 (2008. 7. 제주지검)

- ▶ 2008. 7. 3. 미국에서 대마초 약 114.04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 (2008. 7. 수원지검)

- ▶ 2008. 7. 8. 캐나다에서 대마 3.7g을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 (2008. 8. 제주지검)

- ▶ 2008. 8. 5. 캐나다에서 땅콩버터 통속에 대마초 25.93g이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 (2008. 9. 부산지검)

- ▶ 2008. 9. 2. 캐나다에서 고체폴 빈 통에 대마 2.23g을 은닉하여 국제우편으로 밀반입

○○○○ 사건(2008. 11. 순천지청)

- ▶ 2008. 10. 경 미국에서 땅콩버터 속에 대마 38.2g을 은닉하여 국제특송화물로 밀반입

**2009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사건 (2009. 1. 인천지검)

- ▶ 2009. 1. 16. 네덜란드 암스페르담 소재 스키폴공항에서 대마초 948g 및 대마수지 12g이 은닉된 여행용 가방 1개를 소지하고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여 밀반입

○○○○○ 사건 (2009. 2. 서울중앙지검)

- ▶ 2009. 1. 19. 미국 텍사스에서 국제 등기우편을 이용하여 땅콩버터에 위장된 대마 9.25g 밀반입

○○○○○○○ 등 사건 (2009. 3. 인천지검)

- ▶ 2009. 3. 2. 리비아에서 가방안에 대마수지 24.1g을 은닉하여 아랍에미리트 두바이를 거쳐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반입

○○○○○○○ 사건 (2009. 3. 인천지검)

- ▶ 2009. 3. 24. 일본 나리타공항에서 대마초 10.85g을 세뭉치로 나누어 각각 비닐로 싸고 팬티 안에 은닉한 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09. 5. 인천지검)

- ▶ 2009. 5. 2.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비닐 팩으로 포장된 대마초가 각 5,110.5g, 5,060.5g이 은닉된 나무조각품 2개를 건네받은 후 항공기에 탑승하여 화물로 기탁하고, 카타르 도하에서 환승하여 일본 오사카 공항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입국하여 밀반입

○○○ 대마쿠키<sup>16)</sup> 밀수 사건 (2009. 6. 창원지검)

- ▶ 2009. 6. 16. 미국에서 대마쿠키 60개(약 1,497g)를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 등 사건 (2009. 7. 서울중앙지검)

- ▶ 2009. 7. 7. 나이지리아에 있는 공범 ○○의 지시를 받아, ○○○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성명불상 백인 여자를 운반책으로 이용하여 대마초 약 4.3kg를 보낸 것을 인천국제공항에서 수령하여 밀반입

○○○○○○○○○○○○○○○○○○ 사건 (2009. 7. 인천지검)

- ▶ 2009. 7. 9.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대마초 약 6kg을 은닉한 채 남아프리카공화국을 출발하여 카타르에서 환승하고, 일본을 경유하여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여 밀반입

16] weed cookie: 대마성분인 칸나비노이드가 함유된 대마가루와 밀가루를 반죽하여 쿠키로 만든 것

○○○ 사건 (2009. 8. 서울북부지검)

- ▶ 2009. 8. 3. 미국발 인천국제공항행 비행기 국제특송화물을 이용하여 대마 약 21g을 특송화물용 봉투 안에 넣어 우송하여 밀반입

○○○○○ 대마쿠키 밀수 사건 (2009. 11. 인천지검)

- ▶ 2009. 10. 26. 미국에서 대마가 함유된 대마쿠키 802g을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09. 11. 인천지검)

- ▶ 2009. 11. 24. 미국 시카고에서 대마초 44g을 땅콩버터 용기 안에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으로 밀반입

**2010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대마강정 밀수 사건 (2010. 1. 인천지검)

- ▶ 2010. 1.경 캐나다에서 대마강정 147.9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대마쿠키 밀수 사건 (2010. 2. 인천지검)

- ▶ 2010. 2.경 미국에서 대마쿠키 171.5g을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대마쿠키 밀수 사건 (2010. 2. 인천지검)

- ▶ 2010. 1.경 미국에서 대마쿠키 200.83g을 신문지 등과 함께 넣어 은닉하여 국제특급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밀수 사건 (2010. 5. 서부지청)

- ▶ 2010. 4.경 체코에서 대마초 약 9.9g을 국제통상우편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10. 5. 제주지검)

- ▶ 2010. 4.경 네덜란드에서 대마초 약 10.87g을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사건 (2010. 10. 인천지검)

- ▶ 2010. 2.경 미국 시카고에서 갈색 종이봉투 안에 대마쿠키 171.5g을 넣어 은닉하고 국제특급우편으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제 1 장 서론

제 2 장 마약류별 일반현황

제 3 장 국내 마약류범죄 동향

제 4 장 마약류 단속 국제협력 동향

부록

### 2011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 (2011. 2. 부산지검)

- ▶ 2011. 2.경 미국 시카고에서 국제통상우편 속에 대마초 약 3.58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미국 국적 영어강사 밀수 사건 (2011. 6. 수원지검)

- ▶ 2011. 5.경 미국에서 우편물 속에 대마초 약 2.43g을 은닉한 후 국내로 발송하는 방법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캐나다 여성 밀수 사건 (2011. 8. 인천지검)

- ▶ 2011. 8.경 캐나다 벤쿠버 국제공항에서 대마 약 92.5g을 콘돔으로 포장한 후 자신의 몸에 은닉하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미(美)정부 계약근로자 밀수 사건 (2011. 12. 서울서부지검)

- ▶ 2011. 10.경 미국발 미 군사우편 행낭에 대마초 약 50g을 은닉한 후 유나이티드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 2012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 미국 국적 유학생 밀수사건 (2012. 1. 서울서부지검)

- ▶ 2012. 1.경 미국 켄터키주 루이빌시에서 대마초 22.51g을 구입한 후 국제우편물을 통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 ○○○ 밀수사건 (2012. 5. 포항지청)

- ▶ 2012. 4.경 국제우편물을 통해 캐나다로부터 대마초 14.08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멕시코 국적 서커스단원 밀수사건 (2012. 5. 순천지청)**

- ▶ 2012. 5.경 항공기 화물에 대마초 17.73g을 은닉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싱가포르인 밀수사건 (2012. 7. 창원지검)**

- ▶ 피의자는 2012. 6.경 스리랑카에 있는 친구에게 요청하여 국제우편물을 통해 대마초 5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대마쿠키 밀수사건 (2012. 8. 진주지청)**

- ▶ 2012. 8.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쿠키 853.09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미국인 영어교사 밀수사건 (2012. 9. 부산동부지청)**

- ▶ 2012. 9.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10.32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불법문신업자 밀수사건 (2012. 10. 서울서부지검)**

- ▶ 2012. 10.경 국제특송화물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8.49g을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주한미군 밀수사건 (2012. 11. 서울서부지검)**

- ▶ 2012. 9.경 미국에서 원두커피안에 대마초 944.57g을 은닉한 후, 미 군사우편을 통해 국내로 발송하여 인천국제공항으로 밀반입

**미 군사우편 이용 밀수사건 (2012. 12. 수원지검)**

- ▶ 2012. 7.경과 10.경 미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505.6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2013년도 주요 대마 밀수 사건

미 군사우편 이용 밀수사건 (2013. 3. 인천지검)

- ▶ 2013. 3.경 미 군사우편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대마초 435g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러시아 선원 밀수사건 (2013. 5. 부산지검)

- ▶ 2013. 5. 27. 감천항에 정박중인 러시아 선적 알타이호 선실 내에서 대마 946g 및 해쉬쉬 55g 보관하여 밀반입

엔터테인먼트 관련 종사자 밀수사건 (2013. 7. 인천지검)

- ▶ 2013. 7.경 국제우편물 속에 대마초 약 837g을 은닉한 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

러시아 여성 밀수출사건 (2013. 10. 인천지검)

- ▶ 2013. 10. 17. 장갑 안에서 해쉬쉬를 은닉한 후, 김해국제공항에서 인천국제공항을 경유하여 러시아로 해쉬쉬 약 21g을 밀수출하려다 미수에 그침

영어강사 대마 밀수사건 (2013. 10 대구지검)

- ▶ 2013. 10.경 네덜란드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대마초 약 3.9g, 대마수지 4g을 밀반입

미 유학생 대마 밀수사건 (2013. 12. 대전지검)

- ▶ 2013. 10.경 프랑스에서 국제우편물을 통하여 대마초 약 10g을 밀반입하여 흡연